대한민국 유일의 중소기업 CEO를 위한 경제·경영 전문지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

February 2019
VOL.168

SPECIAL P.06
더 잘사는·안전한·평화로운 대한민국

DIGITAL 2020 P.28
친환경 자율주행차를 준비하라

NK NEW BUSINESS P.32
남북평화·번영의 창
개성공단 재개를 준비하며

TAX LIBRARY P.46
중소기업 CEO가 꼭 알아야 할
2019 개정 세법과 절세 방안

이달의 CEO
권태상 ㈜에이씨앤티시스템 대표이사

산업용 통신장비 분야 최강자

이더포스
하위 필드 기기의 각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스마트 데이터 서버 솔루션을 구현하는 이더포스(EtherFOS)는 ㈜에이씨앤티시스템의 주력 제품이다.

IBK경제연구소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

VOL 168_February 2019

P.01 THE START
중소기업과 대기업,
나란히 가는 협력의 길

P.02 WORLDWIDE
GLOBAL ECONOMY

P.04 SURVEY
모두에겐 저마다의 명절이 있다

P.26 OVERSEAS COMPANY
드론 솔루션 제공 업체 에어로다인
드론으로 인프라 점검관리

P.28 DIGITAL 2020
친환경 자율주행차를 준비하라

P.32 NK NEW BUSINESS
남북평화·번영의 창
개성공단 재개를 준비하며

P.36 ECONOMIC REPORT
한눈에 읽는 경제 동향

P.40 INDUSTRY REPORT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경영

P.44 BIZ CONSULTING
저성장기의 고착화,
소비자 욕구와 환경 변화에 주목하라

P.46 TAX LIBRARY
중소기업 CEO가 꼭 알아야 할
2019 개정 세법과 절세 방안

P.48 TREND
타인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 착한 소비

P.50 COMMUNICATION
부드럽고 분명하게 거절하는 방법

P.52 THE END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나란히 걷는 꽃길

P.06 SPECIAL
더 잘사는·안전한· 평화로운 대한민국

1. '문재인표 포용 성장'의 핵심은 대기업 독식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
2.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후원하는 중소기업 정책
3. CEO의 오늘은
4. 중소기업의 혁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P.16
COVER STORY
이달의 CEO
권태상 ㈜에이씨앤티시스템 대표이사
산업용 통신장비 분야 최강자

P.22
FINANCIAL PARTNER
IBK창공人 ❶
케이엔테크
국민 안전 책임지는
혁신 소방기자재 제조

P.24
FINANCIAL PARTNER
IBK창공人 ❷
젠트로피
'쓸모 없는 에너지 0'
배터리 공유 서비스

중소기업과 대기업, 나란히 가는 협력의 길

IBK경제연구소장 **장민영**

도요타는 신제품 개발 초기 협력사와 공동으로 지식을 교환하고 목표원가를 결정하는 목표원가법을 시행, 2002년 이후 3년간 총 6,900억 엔의 원가 절감에 성공했으며, 기술을 보유한 부품제조사 역시 글로벌 부품사로 성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윈윈Win-win을 이룬 대표적인 해외 성공 사례다. 이외에도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성과공유제를 통해 기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한가?

국내에서도 이미 2006년 성과공유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10년이 넘게 흐른 지금도 대기업들의 참여는 부족하다. 2018년 9월 성과공유제 추진 현황에 따르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대기업은 91개사로 전체 대기업 중 6.8%만 참여하고 있고, 중견기업의 참여 비율 역시 4.0%에 불과하다. 이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이 혁신으로 납품가를 낮추더라도 기술 개발 이후 대기업의 납품 단가 인하 압박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협력이익공유제'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란 기업 간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협력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 모델이다. 기존 성과공유제처럼 단순히 생산비용 최소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이익 최대화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물론 대기업과 직접 협력하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20.8%에 불과하기에 일부 기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대기업이 국내 중소기업 대신 해외 협력사로 전환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거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 등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그러나 서로 이 제도의 근본적 취지에 공감한다면 상호 효율적인 절충안이 마련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은 "과거 세상은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세상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누군가가 반드시 먹힐 필요는 없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신뢰를 바탕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협업해야 한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장점을 살려 탄탄한 경쟁력을 갖춘 세계시장의 리더가 또 한 번 탄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발행일
2019년 2월 1일(통권 제168호)
등록번호
서울중 라 00429

발행인
김도진
편집인
장민영
발행처
IBK기업은행(www.ibk.co.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을지로2가)
Tel
02-729-6178
Fax
0505-077-5368

기획
IBK경제연구소
편집 · 디자인 · 제작
한국경제매거진㈜
02-360-4816

인쇄소
㈜교학사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의 저작권은 IBK기업은행에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매품

36억 달러

미국, 역대 최장 기간 셧다운으로 막대한 피해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장벽 예산 갈등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상태인 셧다운이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2019년 1월 11일 기준으로 21일째를 기록한 것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국경장벽 예산을 뛰어넘는 36억 달러라고 전망했다.

10.19%

브라질 펀드, 유일한 플러스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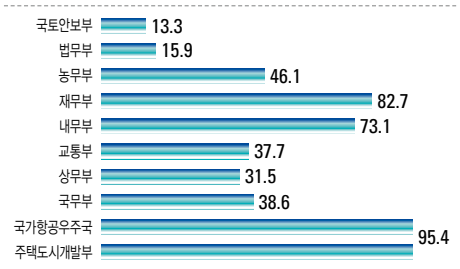
브라질 펀드가 연일 승승장구 중이다. 펀드평가사인 KG제로인에 따르면 2019년 1월 11일 기준 주요국 해외 주식형 10억 원 이상 펀드의 1년간 운용 실적 중 브라질 펀드만 유일한 플러스 수익률인 10.19%를 보였다. 3개월은 14.29%, 6개월은 26.04%다. 이 같은 브라질 증시의 고공행진은 30년 만에 출범한 우파 정권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Global Economy

미국은 역대 최장 기간의 셧다운,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 중국은 대외투자 급감 등이 경제에 위협을 주는 가운데 브라질 펀드는 국가 펀드 중 유일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고 일본은 28년 만에 도산 기업이 최저치를 기록하며 이들과 반대된 행보를 보여 주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한 미 연방정부 해고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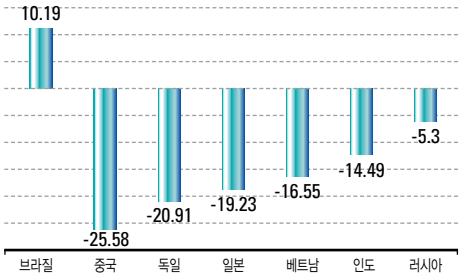
국가항공우주국과 주택도시개발부 직원이 가장 큰 비율인 95.4%가 해고됐으며 재무부, 내무부 등도 70%가 넘는 공무원이 해고의 피해를 입었다.



단위% 자료 미국무부

최근 1년간 국가별 해외 주식형 펀드 수익률

중국, 독일, 일본, 베트남, 인도, 러시아 등의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는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단위% 자료 KG제로인

15년 후

영국, 노딜 브렉시트가 위협한다

2019년 1월 15일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협상안을 부결시키며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표출되고 있다. 노딜no deal 브렉시트란 영국이 아무런 대책 없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것을 말하고 이것이 현실화되면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된다. 노딜 브렉시트 시에 15년 후 영국 국내총생산GDP은 8% 감소하고 실업률은 7.5% 늘어나며 집값은 30% 폭락할 것이라고 영국은행이 분석했다. 또한 EU 경제 전체와 동유럽, 북아프리카 등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세계은행WB은 전망했다.

70%

중국, 무역전쟁 영향으로 대외투자 급감

중국과 미국의 계속되는 무역전쟁 여파로 지난해 중국의 대외투자가 70% 넘게 급감했다. 베이커매킨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대미·유럽 외국인 직접투자가 전년 대비 73% 감소했다. 이는 6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특히 대미 직접투자액은 전년 대비 83%가 급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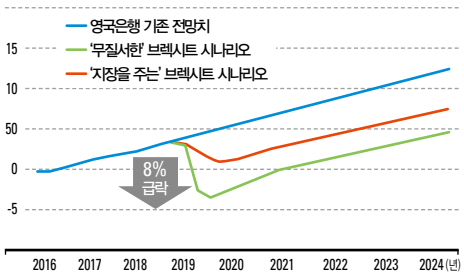
8,235개

일본, 기업 도산 28년 만 최저

신용조사회사인 도쿄상공리서치의 '2018년 전국 기업 도산 건수'에 따르면 지난해 부채 1,000만 엔 이상 업체 중 도산한 기업은 전년 대비 2.02%가 줄어든 8,235개다. 일본은 지난해까지 10년 연속 도산 건수가 감소했으며, 2018년의 경우 1990년 6,468건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일본의 경제 호황기인 버블경제 시기 수준까지 감소한 것이다. 도쿄상공리서치는 "금융기관이 기업의 대출금 변제를 유예해주는데 유연하게 대처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손 부족으로 도산한 기업은 2013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다.

브렉시트 시나리오별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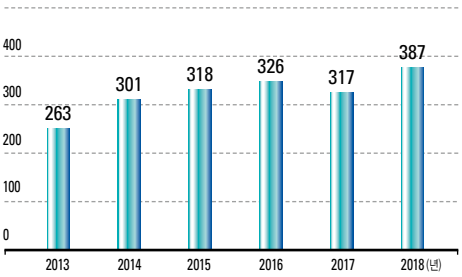
영국은행에 따르면 영국과 EU 내 관세와 무역장벽이 도입되는 '지장을 주는 브렉시트' 시 영국 경제가 급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위 % 자료 영국은행

일손 부족으로 도산한 일본 기업 추이

일본은 아베노믹스 이후 경기 개선으로 일감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많은 중소기업이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도산하고 있다.



단위 개 자료 도쿄상공리서치

WRITER 박주연

모두에겐 저마다의 명절이 있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고 직업이 다양한 만큼
설을 보내는 방법 역시 가지각색이다.
이번 설은 어떤 풍경을 그려낼까?

Everyday

특출나게 응답이 많은 날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번 명절도 극심한 눈치게임이 예상된다.

Hometown

해마다 친지 방문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여전히 '친지 방문 및 성묘'가 압도적 1위.
특히 연령대별로 30대가 60.8%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반면 50대는 45.6%만
응답해 이제 50대는 직접 이동을 하는
'레벨'이 아님을 보여 줬다.

Utility

과반수가 선택한 '상품권'. 대부분이 필요한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선물에 있어 실용성의 가치가 커졌다.

How

이번 설 연휴의 계획은?

5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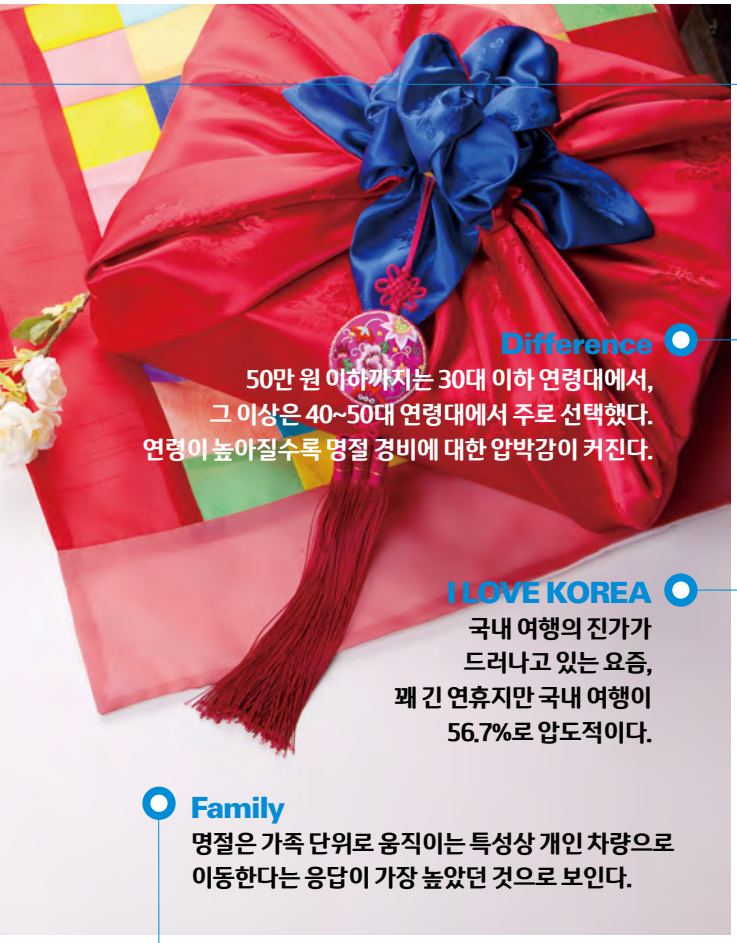
집에서 휴식	34.2%
국내외 여행	6%
연휴 관계없이 업무	4.6%
기타	1%

Why

명절 선물로 받고 싶은 것은?

한우 세트
17.6%

건강식품	7.6%	생활용품	4.2%
기타	7.2%	과일	3.2%
받고 싶지 않음	6.6%	술	2.6%



Difference

50만 원 이하까지는 30대 이하 연령대에서,
그 이상은 40~50대 연령대에서 주로 선택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명절 경비에 대한 압박감이 커진다.

I LOVE KOREA

국내 여행의 진가가
드러나고 있는 요즘,
꽤 긴 연휴지만 국내 여행이
56.7%로 압도적이다.

Family

명절은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특성상 개인 차량으로
이동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Who

올 설의 예상 경비는?

30만 원 이하
39%

30만~50만 원	29.8%
50만~70만 원	16.8%
70만~100만 원	10.4%
100만~200만 원	2.6%
200만 원 이상	1.4%

When

친지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날짜 및 시간대는?

2월 2일 토요일
23.7%

2월 4일 월요일	20.9%
2월 3일 일요일	18.8%
2월 5일 화요일	18%
2월 1일 금요일 퇴근 후	12.4%
2월 6일 수요일	3.6%
기타	2.6%

Where

여행을 계획했다면,
가려고 하는 곳은?

국내(제주도 외)
40%

동남아시아	20%	유럽	6.7%
제주도	16.7%	중국	3.3%
일본	10%	호주	3.3%

What

친지 방문 시 교통수단은?

개인 차량
82.4%

기차(SRT, KTX 등)	7.9%
버스	7.7%
비행기	1.1%
기타	0.9%

소비 트렌드를 짚는 오픈 서베이

조사 대상 2050 남녀 500명
조사 시기 2018년 1월 중
조사 방법 온라인 오픈 서베이 플랫폼

설문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리포트〉 편집부(sh961443@naver.com)로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더 잘사는·안전한·평화로운 대한민국

우리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민족입니다. 놀라운 경제 성장의 속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거둔 성과, 세계로 뻗어 가는 한류 열풍이 이를 입증합니다. 반세기 만에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루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창의와 혁신으로 우리가 선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혁신과 함께하겠습니다.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 개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산단과 스마트시티의 모델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이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능정보화, 디지털화, 플랫폼 경제가 그 핵심입니다. 그 기반인 데이터, 인공지능AI, 수소경제, 스마트공장, 자율주행 자동차 등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을 창업과 혁신성장으로 연결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경제 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옵니다. 기업도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투자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중에서 -

2019년 8대 선도사업과
3대 기반경제 투자 예산
8대 선도사업
3조6,000억
(1조3,500억 증액)
스마트공장
1조300억
(5,900억 증액)
에너지신산업
8,700억
(2,800억 증액)
미래자동차
7,600억
(1,700억 증액)
바이오헬스
3,500억(800억 증액)
스마트팜
2,400억(1,300억 증액)
스마트시티
1,300억(500억 증액)
드론
1,200억
(500억 증액)
핀테크
100억
(60억 증액)
1조400억
(4,600억 증액)
데이터 · 블록체인 · 공유경제
수소경제
1,100억(700억 증액)
인공지능
3,400억(900억 증액)
3대 기반경제
1조4,900억
(6,200억 증액)
단위 원
자료 기획재정부

1

'문재인표 포용 성장'의 핵심은 대기업 독식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

손성태 한국경제신문 정치부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월 2일 '오늘이 행복한 나라'라는 신년사 제목으로 국민들에게 인사를 했다.
후퇴 없는 경제정책, 중소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국 경제가 위기란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위기의 징후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에 버금간다는 회의적 분석은 경제현상에 대한 냉철한 진단이라기보다는 이데올로기적 호들갑에 가깝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2% 후반대의 저성장 터널로 진입했고, 반도체, 자동차, 중공업 등 주력 사업의 국제 경쟁력 상실과 전통 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전략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비 등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해 새로운 경제체제에서 대기업 의존도가 극심한 현재 산업구조로는 미래가 암담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구조에서 기업별 수출 비중은 대기업 편중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기업별 수출입 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업 0.9%(803곳)가 지난 2017년 전체 수출액의 3분의 2를 차지한 반면 전체의 97.4%(9만1,468곳의 중소기업은 1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상 최초 수출 6,000억 달러 달성',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세계 6위 수출대국',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경제강국 30-50클럽 가입' 등에 숨겨진 한국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경제 양극화 해소, 즉 중소·벤처기업 육성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 독식'의 기형적 경제구조를 탈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해법으로 '포용적 성장'을 제시하고 있다.

1대99 사회 또는 승자 독식의 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속적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다.

이제 집권 3년 차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는 포용적 성장의 결실, 즉 중소·벤처기업의 국내 및 글로벌 경쟁력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경제정책 후퇴 없다"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한국 경제구조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은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가 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

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해 오면서도 양극화 등의 부작용을 양산했던 경제구조를 임기 내에 바꿔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가 올해 신년회를 사상 처음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것도 경제·산업정책의 방향을 기존 대기업 위주에서 탈피, 중소·벤처기업 육성 쪽으로 틀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문 대통령이 신년 행사 후 스타트업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와 수제화 공방을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잡은 데 이어 지난 1월 7일에는 200여 명에 이르는 중소·벤처기업인을 청와대로 불러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새 경제, 사람 중심 경제의 주역"이라며 "가장 시급한 현안인 일자리 문제도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고용이 늘어야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 역시 중소·벤처기업이 튼튼하게 성장해야 가능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전폭적인' 중소·벤처 지원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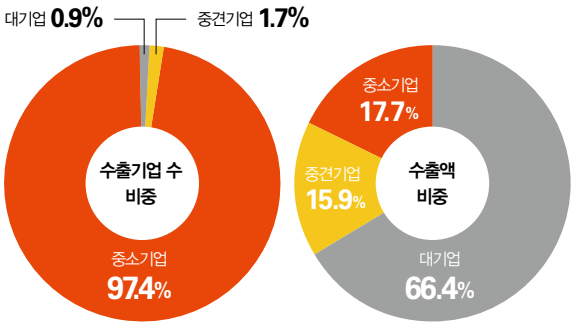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원을 중소·벤처기업에서 찾는 다양한 지원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부당 납품 단가 인하 등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 및 혁신모험펀드 조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을 폐지해서 신생 벤처기업들이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었다.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인들과의 청와대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창업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올해는 여러분이 더욱 크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는 중소기업에 투자할 벤처펀드 4조 원 이상, 중소기업 연구·개발R&D에 지원할 예산 20조 원, 중소기업 전용 R&D 자금 1조 1,000억 원 등이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들의 창업 및 성장 생태계 조성 계획도 잡혀 있다. 올해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의 테스트와 출시가 가능해졌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올해 스마트공장은 4,000개가 늘어나고, 스마트산단 2곳도 새로 만들어진다.

정부의 중장기 로드맵에는 중소제조업의 50%를 스마트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 보급, 스마트산단 10곳 조성 등의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 기업별 수출 현황(2017년)



2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후원하는 중소기업 정책

중소기업이 주인공이 되어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고 있다.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말이다.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올해에도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저성장 기조 등 여전히 우리 경제에 대한 장밋빛 전망과는 거리가 있는 소식이 많다. 하지만 우리 경제를 돌아보면 여건이 만만했던 적은 없었으며, 우리 중소기업인들은 언제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 올 초 문재인 대통령이 한 중소기업 단체를 방문했 때 언급한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슬로건은 이러한 기업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마련한 중소기업 정책들이 성과를 내는 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그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되었던 부분이나 중소기업의 수요에 미처 따라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개방형 혁신 생태계로의 출발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제조업이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도록 2022년까지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의 50%에 해당하는 3만 개 기업에 스마트공장을 보급해 불량률을 줄이고 원가 절감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공급하기보다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역 주도형 지원 모델을 새롭게 만들고 대기업과 정부가 함께(5대5) 지원하는 상생형 모델도 도입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1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 개발이 시장에서의 직접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R&D의 시장지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신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제품 시범구매제도를 2018년보다 4배 이상 확대해 총 2,000억 원 규모로 시범 구매하도록 하고 우수 조달제품 제도 등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둘째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민간 자금을 유인해 4조 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만들어 제2의 벤처 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창업, 지방, 여성 등 민간투자 시장에서 소외되는 분야에 대한

▲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월 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투자도 빼놓을 수 없는 지원 분야다. 대기업, 연구소 등의 사내 벤처를 활성화하고 창업부담금과 세금 감면을 확대해 기술 창업을 촉진해 나가는 한편, 창업 기업 전용의 공공 구매제도를 만들어 창업 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다.

또한 대·중소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소통하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혁신 주체들이 교류·소통해 신제품을 개발하는 개방형 혁신 창업 공간을 조성하고, 혁신 주체 간 공동 R&D 등 기술 교류·협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기업들이 규제 걱정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도 차질 없이 도입할 계획으로 있다. 규제자유특구에는 메뉴판식 규제 특례뿐만 아니라, 규제 혁신 3종 세트(① 규제 해당 여부 등을 30일 내에 회신하는 규제 신속 확인, ② 법령이 미비하거나 법령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에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 특례, ③ 근거 법령이 없거나 규제 적용이 맞지 않는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신제품,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 허가)가 적용될 것이다.

셋째로 부드러운 넛지 방식으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혁신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기업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정부가 매칭 투자하는 '인센티브 지원' 방식을 확대한다.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과를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를 확산해 상생 혁신의 제도적 토대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에는 R&D, 정책 자금 등 정책을 확실히 우대 지원해 더불어 잘사는 상생 협력을 가속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넷째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들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해 말 수립한 '자영업 혁신 대책'이 촘촘하게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책의 세부 과제들을 빠짐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에 발행한 4조 원 규모를 포함해 2022년까지 18조 원 규모로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발행해 골목상권에 돈이 돌게 할 계획이다. 카드 수수료 인하와 세금 감면을 대폭 확대하고, 결제 수수료가 0%대인 '제로페이'를 본격 시행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신규 창업자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교육, 컨설팅을 강화하고, 어쩔 수 없이 폐업할 경우에는 채무 감면, 점포 철거 지원 등을 통해 신속한 폐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혁신형 소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우대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공동 기술 개발-제조-판매를 일괄 지원하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모든 전통시장에 1개 이상 주차장을 설치하고, 2022년까지 구도심 상권 30곳을 개발해 소비자가 다시 찾을 수 있는 쇼핑 환경도 구축할 예정이다.

올해에 목표로 하는 이러한 중소기업 정책들이 현장에 뿌리내려 하루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장서서 최고의 행정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려 한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이들 부처와 끊임없이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한편 기존 정책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즉시 반응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CEO의 오늘은

지금 이 순간, 현장에서 가장 '가려운 곳'은 어디일까.
정부 정책 관련, 치열한 첨단에서 전해오는
현직 최고경영자CEO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보맵
류준우 대표

4차 산업혁명, '속도'가 관건이다

'보맵Bomapp'은 어떻게 탄생했나.

보맵은 첨단 정보기술IT을 접목해 보험 관리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애플리케이션이다.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내가 가입한 보험은 물론 월납보험료, 보장 내용, 해지 환급금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준다.

지난해 말 회원 수가 100만을 넘어섰다. 구체적인 성과가 궁금하다.

현재 보맵은 일반 고객은 무료로, 영업 툴로 활용할 수 있는 설계사는 일부 사용료를 내는 구조로 운영된다. 보험사 및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 차원의 턴키 계약을 통해 자사 설계사들이 일괄적으로 보맵을 활용하기도 한다. 최근 알리페이Alipay의 한국 파트너인 ICB로부터 투자 의향을 받았고, 향후 '블록체인' 활용을 위한 전략적 투자도 유치했다.

3

WRITER 공인호
PHOTO 김기남

정부 규제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나?

보맵의 경우 설계사와 동반 성장 모델이다 보니 직접적인 규제나 애로사항은 없었다. 다만 규제를 피해가다 보니 서비스 개발 측면에서 속도가 더디다. 해외에서는 이미 P2PPeer-to-Peer,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보험금 청구 역시 블록체인을 활용한 서비스가 출시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비행기 연착 보험'이다. 비행기 연착륙 정보가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상 자동 청구와 자동 지급이 가능한 구조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놓고 논란이 분분한 실정이다.

P2P보험 역시 독일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반의 자동차보험이 이미 나왔다. 지인끼리 그룹을 지어 가입하다 보니 자연스레 모럴해저드Moral Hazard가 방지되고, 손해율이 낮으면 적립금 내에서 페이백을 해 준다. 이런 형태는 애견보험에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보험 가입을 위해 집단을 구성하면 불법 모집 행위가 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쇄국주의가 계속될 경우 결국 데이터 패권국에 모두 빼앗긴다는 거다. 향후 새로운 사업모델이 생겼을 때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규제에서 자유로운 해외 기업에 시장을 통째로 넘겨줄까 걱정된다.

어반베이스
하진우 대표

미래에는 '데이터'가 곧 자산이다

'어반베이스Urbanbase'가 국내 최초로 고안된 서비스라고 들었다.

어반베이스는 기존 평면설계도면을 3차원3D으로 3D 공간데이터 플랫폼이다. 머신러닝을 도입해 누구나 손쉽게 3D 공간데이터를 만들고, 만든 3D 콘텐츠를 앱이나 웹,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통해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가상공간에서 가구를 배치해 보거나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공간에서의 VR 투어도 가능하다. LG전자 '베스트샵' 외에 일룸, 퍼시스 등 대형 가구 업체와 40여 개의 부동산 플랫폼, 가전·가구 및 인테리어 브랜드와 기술제휴를 맺고 있다.

창업 당시인 4년 전만 해도 AR, VR라는 용어 자체가 낯설었을 텐데.

맞다. '가상공간'을 수익모델로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다. 100군데 이상 거절당한 끝에 첫 투자자인 액셀러레이터 '스파크랩'을 만났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을 통해 마련한 초기 투자금 10억 원으로 어반베이스가 시작되었다. 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손익분기점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 취약한 자금력 탓에 기술 완성 이전에 매각되는 사례가 많다. 어반베이스는 예상보다 빠르게 손익이 안정화되고 있다. 누적 투자 규모는 50억 원가량. 5년 이내 주식시장 상장도 계획 중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은 없었나?

규제 측면에서 큰 애로사항은 없었다. 다만 '데이터 생태계'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관련 규제가 점차 늘어날까 걱정이다. 어반베이스의 도면은 대부분 사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데, 모든 사업자를 일일이 만나고 자료 제공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허가된 모든 건물의 도면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가 데이터를 개방해 주면 우리나라 전체를 가상화할 수 있게 된다. 개인주택은 배제하고 공공시설물 정보라도 제공해 주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재난 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담론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

어반베이스의 3D 구현 속도를 접한 건축가들은 탄성을 자아내면서도 직업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한다. 하지만 기술의 변화는 또 다른 비즈니스를 만들어 낸다. 도면은 과거 수천 년간 존재해 왔지만, 지금은 AR, VR는 물론 보안, 사물인터넷IoT, 군사훈련, 프롭테크Proptech 등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수많은 산업을 형성해 가고 있다. 신산업에서는 "전문가가 없다"며 인력난을 호소하는데 일반 취업 시장은 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중소기업의 혁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2016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담론으로 제시된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지 3년이 흘렀다. 디지털 기술,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 중소기업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김기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는 2018년 3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스마트공장은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지원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2018년 12월에는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 전략을 통해 2022년까지 중소제조기업의 50%인 3만 개에 대해 스마트공장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제조업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기준 2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4.3%에 비해 2배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산업용 로봇의 2016년 판매량이 4만 1,000대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고용인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 밀도가 631대로 2010년 이후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제조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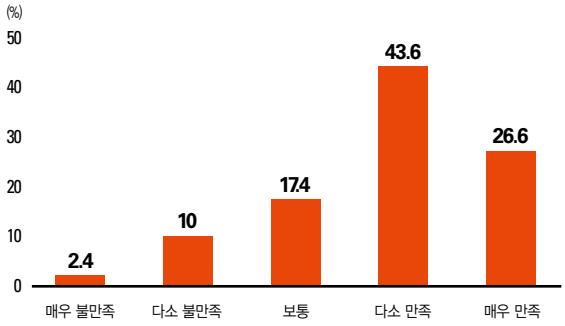
반면, 최근의 제조업 종사자 고령화 추세 및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로 인해 내재된 인적 암묵지가 단절되고 기술 인력의 공급이 정체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오프쇼어링Off-shoring, 중국의 제조기지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등은 제조업 공동화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마트공장 지원 정책은 중소제조기업의 양적·질적 고도화, 비용 절감, 근로의 질 제고 및 인력 유입을 고양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공장 구축 시장을 확대하고 관련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93.7%가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대한 준비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조사에서는 스마트 제조 개념에 대해 53%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기존에 구축된 스마트공장이 일부 제조업종에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다양한 업종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 스마트공장을 이미 구축한 기업의 만족도는 높으나 추가적인 고도화 비용 확보가 어려워 스마트공장 확산에 한계가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만족도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정부는 스마트공장 구축 고도화 및 사후관리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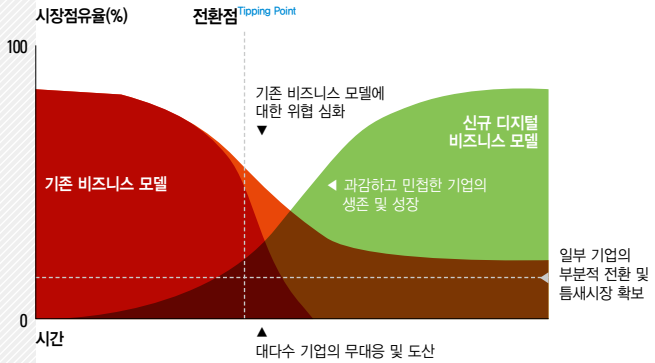
조직 최상위층의 인식 제고

스마트공장은 제조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것으로 디지털 기술에 의한 비즈니스 모델의 파괴적 혁신에 대한 대비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매킨지McKinsey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의 디지털화 속도를 감안할 때 조사 대상 기업의 8%만이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이 유효할 것으로 응답한 바 있다.

디지털화는 사람, 디바이스, 사물 간 실시간의 자유로운 연결이며 이를 통한 데이터 흐름이 끊임없이Seamless 이루어지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디지털화에 있다. 이는 기업 홈페이지와 같은 단순한 것에서부터 생산 공정의 스마트화 등 프로세스 개선, 더 나아가 비즈니스 모델 변화까지를 포괄한다. 디지털 기술로 인해 유통 등 중간 단계가 무용화되면서 한계비용Marginal Cost이 제로화되고 가격 경쟁이 심화되어 소비자는 최대 수혜자가 되지만, 공급자인 기업 측면에서는 이익 풀Profit pool이 축소되어 소수 지배 기업의 승자 독식Winner-takes-all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예컨대,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90% 이상의 수익을 점유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의한 변화로,

기존 비즈니스모델과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간 시장점유율 변화



자료 매킨지

산업별로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신속하게 수립해 실행해야 한다.

한편,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디지털화를 위한 기술 역량뿐만 아니라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정부는 협업 네트워크 등을 통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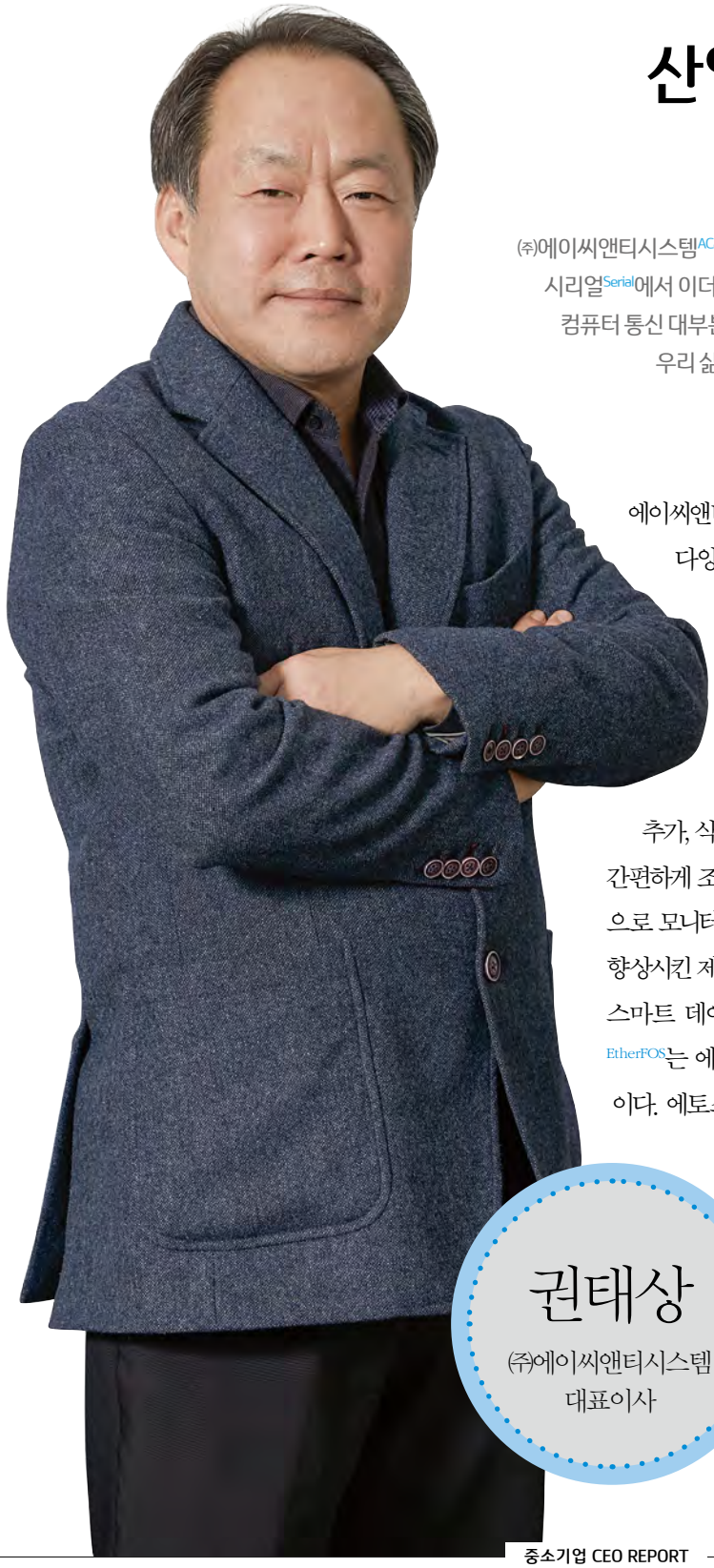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에 대한 조직 최상위층C-level의 인식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디지털 담당 임원Chief Digital Officer 유무의 문제가 아니며 디지털화를 위한 IT 투자가 비용이 아닌 경쟁 우위의 원천이라는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화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Literacy Program을 개발하고 디지털화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또한 기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협업 플랫폼으로 해 조직원 간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조직문화Culture Code가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WRITER 안송연 PHOTO 이소연

산업용 통신장비 분야 최강자

㈜에이씨앤티시스템AC&T System의 주력 제품 에토스ETOS는 산업용 통신 기반을 시리얼Serial에서 이더넷Ethernet으로 변환하는 장비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통신 대부분도 이더넷을 바탕으로 한다. ㈜에이씨앤티시스템이 우리 삶에 보다 깊숙이 들어올 길은 무궁무진하다는 뜻이다.



권태상
㈜에이씨앤티시스템 대표이사

에이씨앤티시스템은 산업 현장에 있는 제어 기기 통신의 다양한 방식을 사용자 정의 통신으로 구현해 내 국내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시리얼을 이더넷으로, 이더넷을 시리얼로 변환하는 타사 제품은 많지만 에이씨앤티시스템의 에토스Ethernet To Serial, ETOS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용자가 원하는 통신 기반으로 변경, 추가, 삭제 등이 가능하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현장에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고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스마트 데이터 서버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는 이더포스EtherFOS는 에토스와 함께 에이씨앤티시스템이 주력하는 제품이다. 에토스와 마찬가지로 전문 지식 없이도 하위 필드 기기의 각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다. 저장 및 관리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로 처리할 수 있다. 이 데이터는 개방형 인터페이스를 바탕으로 상위 서버에 제공된다. 생산 관리, 에너지 관리, 재난 관리 등 어떠한 시스템에도 동일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어 각광받고 있다.

성공 노하우 ❶

불확실한 미래는 스스로 바꿔라 열정과 창의력으로!

외환위기로 모두가 힘들다고 말하던 1998년 창업을 했다. 이후 시장 진출도 쉽지 않았을 텐데, 회사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창업 전까지 LS산전 연구소의 PLC[Program Logic Control]팀에 있었다. 공장 설비를 제어하는 통신 모듈을 개발하는 일을 했다. 그러다 1998년 회사 매각에 인원 감축까지 닥쳤다.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미래로 바꾸기 위한 전략이 필요했다. 1998년 PLC팀에서 7명이 분사를 결심하고 연구·개발[R&D] 중심의 통신장비 회사를 설립했다. 에이씨앤티시스템의 첫발이었다. 초기 2~3년 동안은 주로 연구 용역을 수행했고 이후 자체 제품을 개발해 현재는 제조와 판매까지 한다.

2006년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설비 모니터링 통신장비를 공급했다. SECS[SEMI Equipment Communications Standard]라는 반도체 장비와 컴퓨터 간 통신 규약이 있는데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에 꽤 어렵고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는 우리회사가 유일했다. 이렇게 공공기관과 대기업 납품을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신뢰를 얻으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2016년부터는 변압기 진단 장비를 공급했다. 대기업 공장 등 전력을 사용하는 곳에 변압기 수요가 많다. 이제 산업 현장 곳곳에서 비교적 쉽게 에이씨앤티시스템 제품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느 날 우연히 우리 회사 제품을 만났는데 어찌나 뿌듯한지 '이래서 사업하는구나' 싶었다. 20여 년 전부터 고군분투하던 게 어느덧 결실을 맺고 나름의 역할을 해 내어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일조한다는 생각에 벅찼다.

당시엔 생소한 사업 분야였다. 제품 개발 단계는 어땠나?

1998년 즈음 해외에서는 이미 산업용 이더넷 통신을 사용했지만 국내엔 이더넷 통신을 이용하는 장비가 거의 없었다. 데이터 수집, 기기 간 통신이 시리얼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통신 방식과 신호 레벨이 서로 다른 이더넷과 시리얼은 혼용될 수 없으니 이더넷과 시리얼 사이 게이트웨이가 필요했다. 게이트웨이는 기존에 사용되던 시리얼 방식으로 데이터를 받아 이더넷으로 변환해 상위 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장비였지만 회사 창업 당시 국내 시장은 그 규모를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약했다. 아니,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한다. 해외 제품은 있었는데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기술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행히 그간 축적된 연구 경험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에이씨앤티시스템 제품만의 차별화를 위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탄생한 제품이 지금까지도 산업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에토스 시리즈다.

우리는 제조국, 브랜드마다 다른 통신 방식(프로토콜)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툴을 제공한다. 기기마다 다른 프로토콜 탓에 생길 수 있는 제약을 단번에 해결한 획기적인 제품이었다. 이것만 있으면 산업 현장의 모든 기기와 통신할 수 있고 해당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원하는 데이터를 필터링·처리·연산해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통신 코딩이 필요 없어 전문가가 아니어도 쉽게 조작할 수 있다. 사용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이 제품으로 특허증도 획득했다. 통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은 거의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맞춤형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고객의 신뢰도가 높다.

성공 노하우 ❷

필요하다면 새로운 분야도 개척해야 한다 다른 사업모델 끝없이 고민

이더넷 시장은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앞으로의 사업 전략은 어떠한가?

올해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스마트공장이다. 지난해 산업용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을 개발하고 스마트공장에 공급을 시작했다. 올해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하니 투자도 많이 하고 있다. 알다시피 독일에서 출발한 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적인 화두다. 한국 정부는 2022년까지 중소기업 스마트화 50% 달성을 목표로 세우고 스마트공장 구축을 원하는 기업은 전부 지원한다. 올해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금이 기초 수준의 경우 1억 원, 고도화 사업은 1억5,000만 원이다. 산업(공업)과 제조업에서 더 많은 기업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게 되면 우리 회사에는 기회인 셈이다.

스마트공장 외에도 IoT 기술을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본다. 자연스럽게 빅데이터, 클라우드, 에지 컴퓨팅 기술도 눈여겨보고 있다. 사물이나 데이터를 모으거나 분류하는 데 필요한 딥러닝Deep Learning이나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할 제품도 연구 중이다.

경쟁 제품은 수도 없이 많은데 일반적인 제품으로 승부하려고 하면 턱도 없다. 가격을 낮추는 것도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능에서 차별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않는다. 5년 후에는 현재 매출액의 3배, 약 360억 원을 달성하는 게 목표다. 해외에서도 에이씨앤티시스템 제품을 볼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으로 키우고 싶다. 해외 진출 사업은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싶다.

▲ ㈜에이씨앤티시스템이 지금까지 받은 인증 및 특허는 80여 건이나 된다.

고려하는 신사업모델 범위가 넓다. 아이디어는 주로 어디서 얻는지?

책상에 앉아서 고민하는 건 체질상 못한다. 우리 회사와 가까운 곳에 수리산(경기도 안양시와 군포시 경계에 걸친 산)이 있는데,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때까지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둘레길을 걷는다. 사시사철 언제 걸어도 좋은 곳이다.

앉은 자리에서 벗어나 새소리, 물소리를 들으면 지금하고 있는 사업과는 전혀 다른 분야의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요즘엔 미세먼지가 하도 심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전자제품, 플라스틱 같은 것을 활용하면 새로운 에너지로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구체적인 솔루션은 없고 그저 구상 단계다. 기존 사업이 한 축으로 성장 궤도에 올랐으니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다른 축이 필요하다.

성공 노하우 ❸

직원이 즐거워야 한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대표의 임무다

직원 복지에도 크게 신경 쓰는 듯하다. 지난해 말에는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에도 선정되었고.

나를 비롯해 직원들이 즐겁게 일하는 것을 바라고 그렇게 일할 수 있게 조건을 맞춰 준다. 물론 직원들에겐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웃음). 다들 학교 다닐 때 겪어 봤지 않나. 하기 싫은 공부를 하면 절대 성적이 안 오른다. 여러 과목 중에서도 좋아하는 과목을 배울 때 집중력이 가장 높다. 일도 마찬가지로 즐겁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 성과가 나지 않는다. 가능하면 직원 각각 하고 싶은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직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가 우리 회사 제품에 반영되고 그 제품이 많이 팔리는 경험을 해야 한다. 그러면 산업 발전에 일조한다는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확실히 보상하고, 규모가 비슷한 다른 중소기업에 비해 복지 제도도 잘 갖춰진 편이다. 사내에 체력단련실과 카페도 마련해 휴식의 질도 높아지고 있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자연히 회사의 생산성도 향상된다.

▲ 직원 성과에 보상을 아끼지 않는다는 권태상 대표.

Information

이 제품을 주목하라!

열화상 통합 감시 솔루션

에이씨앤티시스템은 열화상 통합 감시 시스템도 개발한다. 대형 병원이나 공항 등에서 볼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 등에 이 솔루션이 적용된다. 열·실화상을 동시에 측정해 눈으로 쉽게 감시할 수 있고 사용자가 미리 지정한 온도 조건에 다다르면 경보 알람이 울린다. 실시간으로 단문메시지[SMS], 알람 데이터도 발송된다. 발전소 등 위험 요소가 산재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진단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한국전력 전력구에도 에이씨앤티시스템의 열화상 감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지하에 위치한 전력구는 전선과 전선이 만나는 부분에 화재가 나기 쉬워 실시간으로 열을 측정하는 센서가 달려 있다. 불이 나면 관제센터에서 송풍기 작동을 멈추고 산소 유입을 차단한다.

권태상 대표의 기업가 십계명

함께 고군분투하는 다른 CEO들을 위해 공유하는 그의 경영 철학과 비밀.

01 직원 간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라

대표와 직원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직원들끼리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한다. 정기적으로 다른 팀 직원끼리 그룹을 만들어 식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지원하는 이유다. 소정의 회식비를 주는데 모임을 갖지 않고 나눠 갖는다고 하면 혼낸다.

02 꾸준한 운동으로 체력을 길러라

얼마 전 막역했던 직원이 병으로 입원하고 재활치료까지 받는 모습을 지켜봤다.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걸 발휘하기 어렵다. 회사와 가까운 피트니스클럽에서 꾸준히 운동을 한다. 대표실에서 나와 운동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생기기도 한다.

03 열정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다', '그 일이 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이 성공의 첫걸음이다. 즉, 지금 일에 대한 열정이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뜻이다. 직원들에게도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니 좋아하는 일을 맡을 수 있게 돕는다.

04 제품은 아이디어의 집합체다

국내 산업용 통신장비 시장에서는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제품을 남다르게 만들겠다는 생각이었다. 타사 제품을 참고하긴 하지만 결국은 나만의 아이디어 기술이 필요하다.

05 사회공헌에도 힘써라

회사가 성장하고 사업 운영도 안정되었다면 주변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 반드시 회사에도 이익이 되어 돌아온다. 서로 윈윈Win-win 하는 방법이다.

06 결국 사람이 일을 한다

기술, 아이디어 모두 중요하지만 일을 하는 건 사람이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 인재 육성에 투자해야 한다. 우리 회사는 자동화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졌다. 무한한 성장 가능성에 도전할 의향만 있다면 항상 문은 열려 있다.

07 일과 휴식의 균형이 필요하다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보내지만 여가 시간은 최대한 즐겁게 보내려고 한다. 최근에는 라이브 카페에서 연주를 보고 드럼을 배우고 싶어졌다. 악기 하나 다룰 줄 알면 조금 더 낭만적으로 살 수 있겠지. 나중에 밴드를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08 위기가 곧 기회다

이제는 식상해진 말이긴 하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명백한 사실이었고 창업을 결심한 계기였다. 외환위기 이후 원래 다니던 연구소가 위기에 빠지지 않았다면 지금의 에이씨앤티시스템도 없었을지 모른다. 다만, 연구소에 다닐 때부터 늘 시장을 주시하긴 했다.

09 앞선 기술을 연구하라

에토스 시리즈로 회사가 자리를 잡긴 했지만 지금도 신기술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까',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 등 계속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 우리 회사에 맞는 기술이 떠오른다.

10 좋은 제품은 사용자 배려에서 나온다

우리 회사의 시장 선도 전략은 실시간으로, 고객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제품이다. 이런 제품에서 고객의 신뢰가 쌓인다. 기능이 뛰어난 제품이라도 사용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외면당하기 십상이다. 앞으로도 사용자의 요구를 면밀히 분석할 것이다.

기업 HISTORY

설립 초기(1998~2004년)

신제품 개발과 출시로 기술력 인증

1998 LS산전 연구소의 PLC 통신팀 분사
에이씨앤티시스템AC&T System 설립

1999 기업부설연구소
(통신 시스템 연구소) 설립
ETOS-100 출시

2000 삼성전자 벤처투자 유치

2001 ETOS-1000 출시

2002 ETOS 동작원리 특허취득

2003 정보통신 기기 인증서 취득
ETOS 시리즈 LS산전 OEM 공급 계약
어린이재단 후원업체 등록

200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
과학기술부 장관 표창 수상

제2의 도약(2005~2011년)

국내 시장점유율 확보, 해외시장 노크

2005 산업용 이더넷 스위치
i-FOS 시리즈 출시
중국 상하이 공장자동화 전시회
(KOFA-China 2005) 참가
주차유도시스템PING 개발,
LG화재 강남사옥 설치

2006 수출 유망 중소기업 선정

2007 군포 공장 설립

2008 ISO 9001 · ISO 14001 인증

2009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수주

2010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미래선도 과제 수행
녹색기술부분 표창

2011 일본 도쿄자동화전시회 참가
중소기업청장 표창

사업 안정기(2013~현재)

인재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2013 산업용무선모뎀(RCS-XG시리즈)출시
후원감사패(어린이재단)

2014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방재 시스템 출시
경기도지사 표창

2015 LS 산전 전력진단장비 OEM 공급

2016 중소기업청장 표창
이더포스(EtherFos 시리즈)출시

2017 강소기업 인증
인재육성중소기업 지정

2018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경기도 착한기업 선정
2018 안양시 우수기업 선정
경기가족친화일하기좋은기업 선정

▼ 이더포스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다양한 상위 인터페이스를
더한 데이터 서버.

▼ 에토스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산업용 네트워크
디바이스 서버.

WRITER 안송연 PHOTO 원동현

케이엔테크
국민 안전 책임지는 혁신 소방기자재 제조

공동주택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입문이 닫혀 대피하지 못하면 인명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
입주민의 보호, 안전과 직결된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시장에서 케이엔테크의 약진이 돋보인다.

2016년 소방기자재 전문 기업으로 설립된 케이엔테크K&TECH는 현재 비상문자동개폐장치에 주력한다. 제조, 유통, 시공까지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출입을 통제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통제를 해제해 안전한 대피를 유도한다.

김상수 케이엔테크 대표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을 돌파할 수 있는 아이디어 창업을 모색했다. 여러 아이디어를 두고 고민한 끝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분야에 시장 경쟁자가 적고 장기적으로 높은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마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면서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에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던 때였다. 어린이집과 요양원 같은 노유자시설 허가를 위해서도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꼭 필요해지면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기 좋은 제품, 경쟁력도 높였다

현재 케이엔테크의 대표 제품인 KD90은 화재 시 수신기 신호와 연동해 비상문을 자동으로 열어 주는 장치다. 화재 신고로 비상문이 열리면 100데시벨dB 크기의 경보음도 울린다.

3 동반자금융 3-UP 플랫폼

IBK동반자금융

2017년 8월 1일 창립 56주년 기념식에서 선포한 IBK기업은행의 새로운 중소기업 지원 체계 브랜드로,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해소해 주는 금융의 새로운 역할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의 창업-안정화-성장-재도약 등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동반자금융(3-up) 플랫폼을 구축했다.

01 성장 금융

Scale-up 금융 플랫폼

창업 기업의 생존을 넘어 성공을 지원하는 성장 금융

- 창업 기업 대상 자금 공급 확대
- 성장 초기 기업 직접투자 강화
- IBK형 창업벤처지원센터 운영
- 창업 기업 맞춤형 컨설팅/멘토링 강화

02 재도약 금융

Level-up 금융 플랫폼

기업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재도약 금융

- IBK 자체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 해외 진출 기업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
- 일자리 창출 및 우수 인재 유치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인프라 지원
- 기업금융 전 과정의 디지털화 추진
- 생산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경영 지원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도약 컨설팅 지원

03 선순환 금융

Cycle-up 금융 플랫폼

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출입을 지원하는 선순환 금융

-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시장 조성
- 중소기업 M&A 관련 중개 기능 강화
- 다양한 EXIT 니즈 충족을 위한 전문 사모펀드PEF 운영
-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지원
- M&A 및 EXIT 지원 컨설팅 지원

▲ 혁신적 기술로 안전한 소방기자재를 제조하는 케이엔테크의 김상수 대표(가운데)와 직원들.

타사 제품에 비해 눈에 띄는 점은 디자인이다. 기기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예쁘지 않으면' 소비자의 외면을 받는 시대. 김 대표는 무엇보다 제품 디자인에 공을 들였다. 기존 제품에 비해 20%가량 작고 얇아진 데다 전체를 검은색으로 마감해 깔끔하고 세련되었다. 전면부 터치 패널 필름, 상태 표시 발광다이오드LED 등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자체적으로 공급 채널을 간소화하고 마진을 줄여 기존 시장가보다 약 20% 낮춘 가격도 자랑거리다. 이쯤이면 기술력이 의심될 터. KD90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았다. 디자인, 가격, 기술까지 삼박자를 고루 갖춘 KD90은 출시 3년이 지난 지금 시장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IBK창공을 만나 IBK기업은행과 동반자가 되다

500만 원. 케이엔테크의 사업 초기 자금이다. 누군가에게는 턱없이 작은 이 돈으로 김 대표는 시장에 뛰어들었다.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소자본은 지속적으로 그를 괴롭혔다. 다행스럽게도 그때마다 주위에서 그를 돕는 사람이 나타났다. 어떻게 투자를 받을 수 있었냐고 물으니 뜻밖에도 "돈에 연연하지 않아서"라는 답이 돌아왔다. 김 대표가 가능성 있는 사업 아이템으로 진정성 있게 일하는 모습이 케이엔테크에 대한 신뢰를 높인 것이다. 경쟁사의 위협과 자극에도 정직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게 그의 원칙이다.

IBK기업은행의 동반자 금융에서 성장금융을 담당하는 IBK창공創工은 위기마다 위안을 준 존재다. 그는 창업 기업 지원 전략과 자본에 대한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갖춰진 IBK기업은행이 같은 편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 든든했다고. 김 대표는 "전문가들에게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받으면서 그분들이 우리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기술 혁신이 기대되는 2019년

케이엔테크는 개폐장치와 연동되는 카드리더기,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빅데이터와 IoT를 결합한 배연창 등 신제품 출시를 계획 중이다. IoT를 접목한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모바일로도 제어할 수 있어 관리가 수월하고, 빅데이터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환경에서 환기가 가능한 배연창은 일반 가정에도 유용하다. 이처럼 신제품 라인업을 기반으로 시장점유율과 수익성을 높여 지난해 대비 100%가량 성장한 20억 매출을 내는 것이 목표다. 동시에 해외시장을 분석해 2020년에는 해외 진출의 포문을 열 수 있도록 발판을 놓을 예정이다.

WRITER 안송연 PHOTO 원동현

젠트로피
‘쓸모 없는 에너지 0’ 배터리 공유 서비스

‘쓸 수 없게 된 에너지’를 뜻하는 엔트로피Entropy 앞에 제로Zero가 붙었다. 바로 여기에 배터리 공유 서비스로 더 나은 친환경 시대를 꿈꾸는 젠트로피Zentropy의 포부가 담겨 있다.

배달 서비스 시장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수가 2013년 87만 명에서 2018년에는 2,500만 명으로 늘었다. 이용자는 확실히 편리해졌겠으나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생겼다. 예를 들어 배달용 엔진이륜차(오토바이)가 발생시키는 배기가스, 자동차보다 진동이 심한 이륜차를 장시간 타고 속도 경쟁까지 펼쳐야 하는 배달기사의 근무환경 같은 것이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기존에 개발된 전기이륜차가 대두됐지만 배터리 용량 탓에 1회 약 50km밖에 주행하지 못하고 재충전에는 3시간 이상 걸렸다. 엔진이륜차에 비해 속력도 내기 힘드니 실제 사용자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였다.

젠트로피의 공동창업자 이재상·주승돈 대표와 강지훈 이사는 기존 전기이륜차 배터리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엔진이륜차 못지않은 성능을 갖춘 전기이륜차를 상용화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시작했다.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하고 모빌리티에 관심이 많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셋은 대기업의 연구소와 전략기획부, 글로벌 컨설팅사 등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핵심부품 제조, 솔루션, 서비스 기회를 찾았다.

최종 꿈은 에너지 플랫폼 기업

젠트로피의 핵심 사업은 배터리 공유 서비스다. 운행 상황을 판단해 배터리의 충전과 교환 일정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에 필요한 데이터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통해 수집·분석한다. 일반인이 관리하기 힘든 배터리를 전문적으로 유지보수한다는 점에서 사용자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다. 이 서비스에 최적화된 고성능 전기이륜차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할 계획. 주승돈 대표는 “배달 서비스가 경쟁력이 되는 치킨집 사장님, 중국집 배달기사들에게 환영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젠트로피는 올해 안에 제품을 양산하고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젠트로피의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엔진이륜

1)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지능화된 교통 서비스. 전기와 같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고, 1~2인승 개념의 소형 개인 이동수단에 집중되어 있어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부르기도 한다.

2)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죽음의 계곡은 초기 창업 벤처기업이 기술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사업화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넘어야 할 어려움이 있음을 뜻한다.

차에서 발생되던 배기가스도 제로가 된다. 친환경 에너지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셈이다.

젠트로피의 궁극적 목표는 친환경 시대에 혁신을 이끄는 에너지 플랫폼 기업이다. 과거 주유소 네트워크로 자동차는 물론 엔진 기반 산업이 번창한 사례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배터리를 필요로 하는 스마트 모빌리티[1]는 전기 이륜차 외에도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와 킥보드 등 다양하다. 젠트로피는 모빌리티 제조사, 서비스사와의 전략적 협업을 지향하는데, 이재상 대표는 "이를 통해 제조사는 배터리 용량 걱정 없이 성능을 향상하는 데 집중하고, 서비스사는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작은 시장을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필요, 고객의 요구를 살피면서 점진적으로 시장 범위를 넓히겠다는 뜻이다.

세상에 없던 서비스를 위한 노력

제조 기반의 젠트로피 서비스가 성과를 거두려면 최소기능제품Minimum Viable Product, MVP 단계에서 높은 품질을 갖춰야 한다.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안전과 직결되기에 더 그렇다. 이 때문에 개발 초기에 매출을 발생시키기 어렵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대해 강지훈 이사는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국내 연구·개발R&D 과제는 양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정책융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받기 힘듭니다. 즉, 제조업 자금 시장은 구조적으로 이상과 현실 사이 좁혀지지 않는 틈을 갖고 있죠. 벤처기업이 '죽음의 계곡[2]'을 건널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모험 자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젠트로피는 R&D 과제를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시제품을 만든 경우, IoT 핵심 모듈과 통신 서비스 공급 체계를 확보했고 시범 서비스를 위한 최소한의 구매 계약을 추진 중이다. 단계별로 최소의 비용을 들여 성공 가능성을 점검하면서 시장과 투자자가 신뢰할 만한 데이터도 차곡차곡 쌓고 있다. 공동창업자 세 명 모두 손이 열 개라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노무, 회계, 법무, 재무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부분은 IBK기업은행의 도움을 받고 있다. 강 이사는 "IBK창공創工 전문가와 컨설턴트의 도움으로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친환경 시대 혁신을 이끄는 에너지 플랫폼 기업을 지향하는 젠트로피의 공동창업자(위부터) 주승돈 대표, 강지훈 이사, 이재상 대표.

제조와 서비스 시장의 판도를 단번에 바꿀 신기술을 만드는 회사는 결코 아니라는 젠트로피의 창업자들.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고 고객의 필요를 최적의 방식으로 채우기 위해 발품을 아끼지 않는다. 노력형 천재들이 창조해 낼 새로운 생태계가 기대된다.

WRITER 이진원 실리콘밸리 특파원

드론 솔루션 제공 업체 에어로다인 드론으로 인프라 점검관리

드론의 산업 활용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인력에 의존하던 시설물 관리 등의 작업을 드론이 대체하기 위해 관련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기능적 촬영, 그리고 데이터 분석 등이 융합하면서 비용, 납기, 위험도 등을 현격적으로 낮추는 산업적 효용을 만들어 내고 있다.

회사명	Aerodyne Group	본사	말레이시아
최고경영자	카마룰 A. 무하메드	설립 연도	2014년
사업모델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인프라 점검 서비스 등	종업원 수	230명
홈페이지	www.aerodyne.co		

지난 2018년 11월 말레이시아의 통합 통신 인프라 서비스 회사인 에도트코EDOTCO 그룹은 자사의 통신망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무인항공기 기술을 적용하기로 결정, 세계적 무인항공기시스템UAS 솔루션 기업인 에어로다인Aerodyne 그룹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에어로다인사는 무인항공기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제공 업체로 드론을 통해 촬영한 영상 데이터를 첨단 인공지능AI 및 기계학습으로 분석해 정기적 인프라 설비 감시, 네트워크 평가, 예방적 시설 유지보수 조사 등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최근 에도트코와 에어로다인은 말레이시아의 100개 통신 탑에 대해 예방적 유지보수 작업을 완료했다. 이번 파일럿 연구 단계에서 두 기업의 공동 작업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 보고서 작성 시간 50% 향상, 검사 소요시간 35% 단축, 그리고 드론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기술자가 탑 꼭대기에 직접 올라갈 필요가 없어져 안전 위험을 대폭 줄였다. 에도트코사는 드론 기술을 적용한 시설관리 솔루션을 통해 비용과 리스크를 크게 줄이는 이익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전 세계 18개국에 지사를 둔 에어로다인

2014년 설립된 에어로다인은 현재 영국, 미국,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덴마크,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 10개국에서 무인항공기 기술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2018년 하반기에 에어로다인은

Aerodyne

일본에 진출, 지난해 12월 21일 홋카이도 다테시에 있는 풍력발전기의 보수 점검을 실시했다. 에어로다인에 따르면 2018년 9월까지 4만8,000건 이상의 비행 작업을 완료했고, 20만1,000건의 자산 조사, 3만8,000km 이상의 전력 인프라를 점검했다.

에어로다인은 무인항공 인프라 점검 서비스와 더불어 건설 현장, 재난 현장, 교통정보, 농업, 천연자원 등의 모니터링에 특화된 클라우드 플랫폼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oftware-as-a-service로 제공하고 있다. 즉, 드론으로 촬영한 시설의 표면 이미지를 캡처해 3차원3D 모델을 만들어 AI가 결함을 자동으로 판정하고 검출한다.

에어로다인의 AI 기반 기업 솔루션이 이미 석유 및 가스, 전력, 통신, 에너지, 건설, 농업, 인프라 및 그 밖의 주요 프로젝트에 배치되어 있다.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은 중요한 자산 및 인프라의 최적화된 관리, 프로젝트 상황 파악, 그리고 정교한 지리 정보 인텔리전스 등에 에어로다인의 디지털 변환 솔루션을 수용하고 있다.

에어로다인에는 조종사,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업계 전문가를 포함해 230명이 넘는 전임 직원이 있다. 이들은 전 세계 18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2018년 이후 다양한 영역과 업종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드론산업평가기관인 드론인더스트리인사이트DRONEII.com의 2018년 세계 드론 서비스 제공 업체 종합평가에 따르면 에어로다인이 세계 7위에 올랐다.

지난 2018년 3월 말레이시아 최대 디지털 기업 벤처캐피털 펀드인 ADIF는 에어로다인에 수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 ADIF의 역대 투자 중 단일 최대 규모다. 에어로다인의 최고경영자 겸 설립자인 카마룰 A. 무하메드는 "우리의 산업용 무인기 도입의 전환점을 2017년으로 보았다"며 "시장규모는 현재 1,270억 달러 이상으로 예상되며 우리 솔루션 차별화 덕분에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카마룰 A. 무하메드 에어로다인 그룹 CEO

카마룰 A. 무하마드 에어로다인 대표는 영국 노팅햄트랜트대를 졸업하고 런던시의 감사원으로 경력을 시작했다. 영국에서 10년을 보낸 후 말레이시아로 돌아와 소프트웨어 회사인 CAIComputer Associates International의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지역매니저로 활동했다. 평소 창업을 꿈꾸던 그는 지난 2008년 말레이시아 최초의 웹TV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인터렉티브 뉴 미디어 제작대행사를 설립했다. 평소 무인항공기를 주목해 왔던 그는 2014년 미디어 기업에 드론사업부을 추가하면서 다른 2명의 공동 창업자와 함께 에어로다인을 탄생시켰다. 당시 디지털 전환을 추구하고 있는 산업에 집중하면서 이에 적용 가능한 드론 기술을 개발해 온 결과 에어로다인은 설립 4년도 안 되어 세계 20개국에 약 240건의 드론 솔루션을 제공하는 견실한 스타트업으로 성장했다.

2018년 에어로다인은 덴마크의 풍력터빈 블레이드 검사 업체 엣사이트AtSite의 지분 60%를 인수하는 등 글로벌 확장에 나섰다. 무하마드 대표는 "(현지 관련 업체 인수는) 우리가 세계시장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리는 지역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이다"고 설명했다.

무하마드 대표는 현재 에어로다인의 주요 시장은 인프라 시설이라고 말한다. 또한 인프라 자산 외에도 무인항공기 기술의 최적화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장은 농업이라고 말했다.

"농업은 특히 미국에서 거대합니다. 정밀 농업에서 무인항공기를 사용하면 농업을 디지털 공장처럼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 그는 글로벌 확장을 위해 세계 각국의 각 관련 산업 전문가와 파트너십을 맺는 데 집중하고 있다.

WRITER 정동훈 광운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친환경 자율주행차를 준비하라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증액된다. 그 중심에 친환경 자율주행차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자율주행 관련 기업이 세계적인 기술 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육성에 2020년부터 6년간 연구·개발R&D에 1조 원, 인프라 구축에 1조 원 등 약 2조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기술과 사회제도 등을 고려했을 때 완전 자율주행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기에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부품 기술과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인 센서 등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한 포석을 깐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수소경제, 자율주행차 등과 관련한 자동차 산업 전반의 지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전기자동차 43만 대, 수소자동차 6만7,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라며,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R&D를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AI, 수소경제를 포함한 '3대 기반경제'에 1조5,000억 원을,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8대 선도사업'에는 3조6,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제조업 혁신 전략이 가속화되고 있다. 2016년 전장 전문 기업 하만Harman을 인수한 삼성전자와 2018년 전기차 부품 공장을 설립하고 헤드램프 제조사인 ZKW를 인수한 LG전자의 사례는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보여 주는 단편적인 예다. 정보통신화가 가속화되는 자동차업계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까?

내연기관 자동차의 종말과 친환경 자동차의 등장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025년에, 인도는 2030년에,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은 2040년에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이들 나라는 자국에서 더 이상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할 수 없다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미 제조사의 체질 혁신은 시작되었다. 볼보는 2019년부터 내연기관을 장착한 차를 출시하지 않기로 했고, BMW 역시 2019년부터 영국 옥스퍼드 카울리 공장에서 생산하는 미니를 전기차로만 생산한다고 발표했다.

정동훈 광운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내연기관 자동차란 쉽게 말해 휘발유나 경유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내연기관 자

동차가 찬밥 신세가 된 이유는 환경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원유로부터 증류된 석유제품은 연소할 때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을 배출한다. 그리고 환경오염이 심해지면 호흡기 질환이나 암을 발생시키고, 오존층을 파괴하며, 지구온난화를 일으킨다.

일반적으로 전기차를 친환경 자동차라고 간주해서 세계 각국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기차의 보급을 촉진하는데, 엄밀하게 말해서 전기차가 정말 친환경 자동차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연료산지에서 자동차 운행Well-to-wheel까지 전기차 운행의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고려해 본다면 전기차가 친환경이라는 주장이 무색해질 수 있다.

반면 수소전기차는 완벽한 친환경 자동차로 말하기에 손색이 없다. 수소전기차는 연료전지로 산소와 수소가 화학반응을 일으켜 전기에너지를 만들고 저장하며, 이 에너지로 모터를 돌린다. 수소를 활용해서 자동차에서 직접 전기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유해가스가 전혀 배출되지 않으며, 수소와 결합하는 산소를 깨끗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고성능 필터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기가 더 좋아질 정도로 완전한 친환경 자동차다.

중국의 강력한 친환경 자동차 정책에 세계 자동차 회사가 움직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PHEV와 완전 전기자동차Battery Electric Vehicle, EV만을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는 2017년에 전 세계에서 약 300만 대가 팔렸고, 이 가운데 중국에서 123만 대, 미국에서 76만 대가 팔렸다. EV만 따졌을 때 전 세계 110만 대의 판매 대수 중 중국은 58만 대, 미국은 28만 대가 팔렸

자율주행 시스템 기술의 중소기업형 기술 로드맵

연도		2017	2018	2019	최종 목표
연도별 목표		자율주행 시스템 기반 기술 개발	운전자 수용성 및 통합 시스템 성능 개발	자율주행 시스템의 고신뢰성 확보	고신뢰성과 운전자 수용성을 확보한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자율주행 시스템 기반 기술 개발	서라운드 센싱 기술	영상센서 정보 공유를 위한 실시간 스트리밍 기술	주행 환경에 대한 서라운드 센서 자동 보정 기술		스마트 서라운드 센서 개발
	자율주행 제어 기술	자율주행 전장품 파라미터의 동적 업데이트 기술	동역학 및 차량 정보 기반의 자율주행 제어 오류 감지 기술		고신뢰성을 가지는 자율주행 제어 시스템 개발
	자동차-운전자 연계HVI 기술	자율주행차 주행 중 경고 상황에 대한 운전자 혼동 감소 기술	자동차 운전자 연계 자율주행차 인터페이스 설계 기술		자율주행차 운전자 수용성 확보 기술 개발
	통신 및 SW 설계 기술	시스템 통합을 위한 고속 네트워크 설계 기술			고속 차량 백본망 구축
기술·시장 니즈		자율주행 시스템 상용화 기술 개발	자율주행차에 대한 불안감 해소	SW 기술 중심의 적응형 시스템 개발	

다. 전기차 하면 미국의 테슬라가 가장 유명하지만, EV 판매 대수의 90%는 중국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했을 정도로 비야디, 베이징자동차, 지리차, 상하이자동차 등 중국 기업의 EV 기술력은 뛰어나다. 그리고 중국이 친환경 자동차 판매 분야에서 압도적인 이유는 내연기관 퇴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일명 크레디트제다. 중국은 2019년부터 PHEV와 EV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에너지 자동차[New Energy Vehicle, NEV] 의무제를 시행한다. 중국에서 자동차를 3만 대 이상 생산·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NEV의 비율을 2019년 10%를 시작으로 매해 2%씩 늘려 2022년에는 16%까지 올려야 한다. 만일 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크레디트를 다른 제조사로부터 사거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2017년 기준 총 2,830만 대의 자동차가 팔린 중국은 2022년에는 500만 대가 넘는 전기차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 등 오히려 친환경 정책에 역행하고 있으나, 캘리포니아주는 맏형 격으로 친환경 자동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이 도입한 NEV 정책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 중인 ZEV[Zero Emission Vehicle] 정책을 거의 따라 한 것이다. 2018년부터 연 2만 대 이상 생산업체는 2%를 시작으로 매년 2%씩 증가해 2025년에는 16% 이상의 친환경 자동차를 생산해야 한다. 2018년 기준 미국의 10개 주가 동참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갈 길이 멀다. 아직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이 없다. 2017년 8월에 처음으로 203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을 뿐이다.

지역 차원에서 제주도가 2030년 내연자동차 판매 중지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을 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아직까지는 조용하다. 다만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제도로 중앙정부에서 1,400만 원, 그리고 지자체에서 300만~1,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 자동차 산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면 정부의 늦은 대응이 우려된다.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계획

수소차 생산	2022년까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생산 비중 10%로 확대
수소차 운영	올해 서울에서 수소택시 10대 시범 운영 후 다른 대도시로 확대 2022년까지 수소버스 2,000대 보급
수소충전소	현재 15곳에서 내년 86곳, 2022년 310곳으로 확대
연료전지	2022년까지 생산설비 4만 기 확충
수소발전	2022년까지 부품 자립화 추진

컴퓨터화하는 자율주행차

디지털 환경이 가속될수록 경계는 사라질 것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더 이상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나 산업 간 경계는 무의미하다. 이러한 흐름은 자동차 산업에서 일찌감치 시작되었다. 인텔과 퀄컴은 칩을 통해 5세대[5G]와 연계한 커넥티드카를 선보였고, 벤츠와 BMW는 커넥티드카 솔루션을 개발했다. SK텔레콤은 오랫동안 개발해 왔던 차량 자동 감지 시스템인 V2X 플랫폼을 선보였고, 벤츠는 그래픽카드 제조사인 엔비디아[NVIDIA]와 함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만들었으며, AT&T는 BMW와 함께 자율주행을 시연했다.

자동차는 더 이상 제조업에 머물지 않고 정보통신기술[ICT] 전 영역에서 파괴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이동수단에 더해 엔터테인먼트 도구나 미디어, 심지어 콘텐츠로 변모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을 일컬어 제조업의 꽃이라고 한다. 약 3만여 개의 부품이 적재적소에 들어가 작동하는,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와 같은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말이다. 자동차는 기계장치의 복합물이고, 하드웨어의 조립 산업이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자동차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 자동차를 얘기할 때 전장電裝, Electronic Components 산업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제조업의 꽃이었던 자동차가 이제 전자 기기가 된다는 것이다. 자동차가 전장화되니 전자장치를 운용할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게 된다. 그래서 전장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은 함께 갈 수밖에 없다.

또한 자율주행차는 센서 덩어리다. 센서는 우리 몸의 오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귀로 듣는 것처럼 센서는 정보를 수집한다. 자율주행차는 카메라, 레이더Radar, 라이다LiDAR,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 다양한 센서가 수십 개씩 달려 있어 자동차 주위의 온갖 정보를 수집한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서버로 전송된다. 자동차 한 대가 아니라 온갖 차량에 의해 데이터 센터에 정보가 모이게 된다.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자동차는 온갖 사물과 지연 시간 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친환경과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연쇄효과Forward and Backward Linkage Effect가 큰 대표적인 산업이다. 물류, 석유, 조선 등의 산업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구성하는 부품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만큼 고용, 생산, 수출, 투자 등 한 나라의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자동차 공장 하나가 문을 닫아도 지역경제는 초토화될 정도다.

2018년 5월 31일 전라북도 군산 시내의 모습은 자동차 산업의 영향력을 보여 주는 단면이다. 이날은 바로 한국GM 군산공장이 문을 닫은 날이다. 근무 중인 정규직 직원 약 1,800명 가운데 1,180여 명이 희망퇴직을 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1·2차 중소 협력업체는 135개, 근로자는 약 1만

▲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인식하는 자율주행차.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에서 자율주행차가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인식해 멈추는 시연을 하고 있다.

700여 명, 가족 등을 합하면 최소 4만 명 이상이 한국GM 군산공장과 관련되어 있었다. 군산시 전체 고용 비중의 약 22%를 차지하는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군산의 지역경제는 완전히 무너졌다. 자동차 산업이 국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단적으로 보여 준 사례다.

앞서 설명한 볼보와 BMW뿐 아니라 포드는 2019~2021년 사이에 EV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한 종류와 PHEV 한 종류, 여섯 종류의 HEV를 생산할 계획이다. 구글의 웨이모는 이미 지난해 12월 5일에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시작했다. 친환경·자율주행차는 이미 우리의 현실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지속 가능한 자동차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업계는 정부 정책과 이에 따른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한다. 이미 세계 주요 국가는 친환경 스마트 도시를 준비하기 위한 발 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자동차 기업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스마트 홈과 스마트 도시를 지향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동차 키워드는 친환경과 자율주행이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WRITER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남북평화·번영의 창 개성공단 재개를 준비하며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 정상회담, 9·19 평양선언으로 상징되는 2018년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분단 시대의 종언과 평화 시대의 개막'으로 볼 수 있다. 70년 분단체제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평화의 질서, 즉 평화체제가 도도한 역사의 흐름이자 시대 변화의 대세大勢가 되고 있다.

개성공단과 관련해 남과 북은 9·19 평양선언에서 '조건이 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우선 정상화'에 합의했다. 더 나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측의 제안을 적극 환영하면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북측과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라고 평가하고 남은 과제인 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체적으로 평화적 남북관계의 상징이자 경제 번영의 상징인 개성공단 재개의 기운들이 전방위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개성공단 재개, 평화의 신호탄

제재 완화와 관련한 조치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지만 아마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우선순위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은 남북 간에 이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엔 제재나 미국의 독자 제재와 별개로 정상 가동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4·27 판문점선언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 의지 확인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10·4 남북공동선언 적극 실천' 합의, 그리고 9·19 평양선언의 '개성공단 우선 정상화' 합의는 국제사회의 동의만 남아 있음을 확인한 계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개성공단 재개는 제재 완화의 첫 단추로서 의미를 지니며 새로운 남북 경제협력(이하 남북경협) 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서의 의미도 있다.

개성공단의 가치와 목적, 설립 취지를 논할 때 여러 평가가 존재한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은 재개 그 자체가 평화다. 남북의 약 6만여 노동자들이 1년 365일 일상을 함께 지낸다. 상호 존중과 화해 협력, 평화의 물리적 상징이다. 안보적 측면에서 개성공단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을 막아 내는 물리적 안전장치로 작동한다. 무엇보다 경제적 측면에서 구조적 저성장이라는 지속 불가능한 분단경제(섬나라 경제)를 넘어 한국 경제의 활로 모색을 위한 평화경제로 가는 상징이다. 한마디로 우리 중소기업들에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경제적 비교우위를 담보해 주는 엄청난 부가가치 창출의 보고다.

투자의 주체인 기업 입장에서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남북경협이 과연 타산이 맞는가가 큰 관심사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개성공단 중단 이전까지 개성공단 기업들의 실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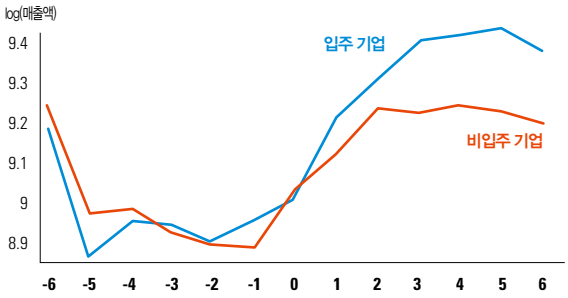
개성공단 입주 전후의 변화

2004년 생산을 시작한 개성공단은 초기 시범단지 15개사를 시작으로 2016년 2월 공단 전면 중단 때까지 125개사가

기업을 운영했다. 개성공단의 경제적 비교우위 측면에서 우선 주목할 것은 개성공단에서 기업 경영 악화로 부도난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이다. 남측 모회사의 금융 문제로 철수한 기업이 1개사가 있을 뿐 엄혹한 남북관계 대치 국면에서도 개성공단 자체 문제로 부도난 기업은 없다. 국내 일반 기업의 5년 생존율 27%(한국무역협회, 2015년 기준)는 물론 유럽 5개국(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기업들의 5년 생존율 42%와 비교해도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의 압도적 경쟁력을 가진다. 무엇보다 생존 차원의 명목적인 기업 유지가 아니라 기업당 평균 매출액 추이는 성장성에 있어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 준다. (〈표 1〉 참조)

개성공단 기업의 성공적 안착은 남측 모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2018년 5월)에서 개성공단에 자회사를 둔 모기업과 국내 제조업 중 규모와 상황이 유사한 기업들과의 비교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가 국내 모기업의

<그림 1> 개성공단 입주 기업과 국내 일반 기업 평균 매출액[로그값] 추이



*입주 전후 연차(0=첫 입주연도)

<표 1> 개성공단 기업 연도별 매출액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기업 수	14	25	58	91	115	121	122	121	121	121	112
평균 매출액	209	555	631	692	761	1,117	1,425	1,787	964	2,024	2,376

*기업 수는 결산서 미확보에 따른 차이임. 2013년 매출 감소는 공단 잠정 중단으로 인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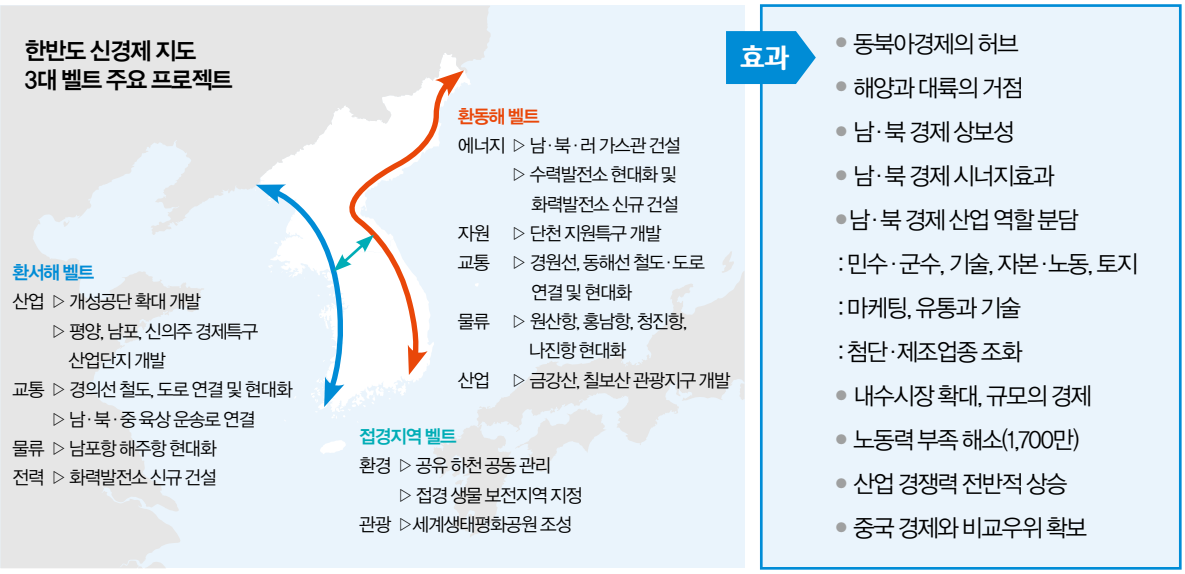
단위 천 달러

<표 2> 개성공단과 해외 공단 진출 기업 비교

기업명	개성 진출 기업			베트남 진출 기업		
항목	모회사 업력 6년(2002년)	자회사 설립 5년 시점(2010년)	2015년 12월 31일 기준	모회사 업력 10년(2002년)	자회사 설립 10년 시점(2010년)	2015년 12월 31일 기준
자산총액	69.9	362.0	776.5	55.9	330.0	582.9
매출총액	163	700	982	163	708	709
영업이익	8.6	33.4	57.4	2.8	31.9	16.3
당기순이익	6.2	36.1	88.4	2.2	35.2	46.4

단위 억 원

<그림 2> 남북경협 고도화: 한반도 신경제지도



매출액과 총자산 증가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준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그림 1>은 개성공단 입주 전후 입주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의 매출액 변화를 나타낸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개성공단 입주의 긍정적 효과가 더 커짐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의 경쟁력은 다른 해외 공단 진출 기업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2>는 규모가 거의 비슷한 동일 업종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과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을 비교한 결과 모든 경제지표에서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 준다.

개성공단은 기업 입장에서 볼 때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닐 수 없다. 사실 우리 국내 기업들의 기준에서 보면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개성공단과 비교할 수 있는 공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저임금, 양질의 노동력, 무관세, 동일 언어, 동일 문화, 서울에서 60km밖에 안 되는 짧은 물류 거리, 임금인상율과 각종 노동 제도, 세무·회계 제도, 그 흔한 노사 간 갈등 문제도 거의 없는 개성공단은 다른 여타의 공단들과 경제적 비교우위에서 압도적이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위해

개성공단은 우리 기업들에 비교할 수 없이 매력적인 곳이다. 그렇다면 향후 개성공단 재개를 필두로 남북경협이 본격화할 경우 우리 기업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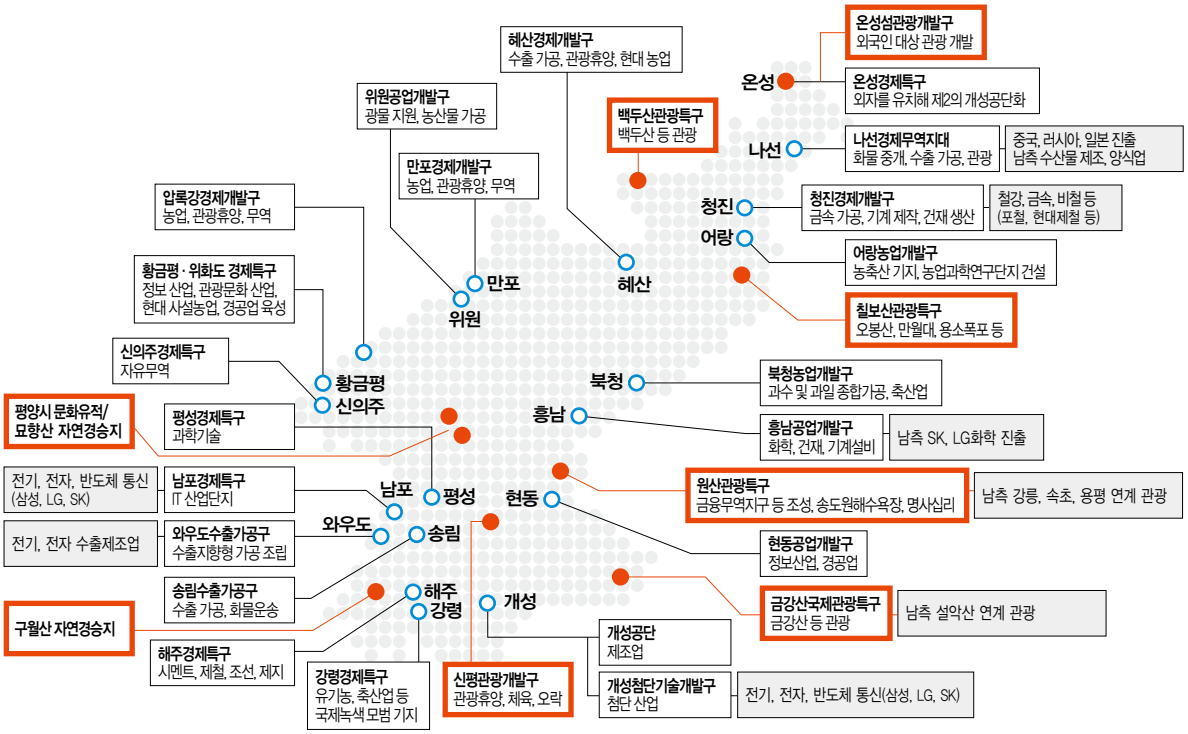
첫째, 기업 고유의 자체 경쟁력 확보다. 개성공단의 경우 125개 기업 중 5~6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이 중소·영세기업인 점을 감안하면 남북경협에서 기업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 어쩌면 오히려 중소기업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신규로 경협 사업에 진출하는 기업은 기존의 개성공단 기업과는 상황이 다름을 인식해야 한다. 단순히 저임금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는 지속이 불가능하다. 이제는 그만큼 상당한 경쟁이 예상된다. 경쟁력 있는 분명한 품목에 대한 기업 스스로 충분한 내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개성공단과 남북경협에 대한 기본 이해, 현지화에 대한 노하우 습득이다. 개성공단 초창기에 기업별로 현지 적

응에 상당한 편차가 있었다. 남북의 체제와 제도, 관습과 문화 차이에서 오는 다름을 온전히 다름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시행착오의 원인이었다. 다름과 차이를 틀림과 차별로 대하는 우愚를 범했다는 것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 개성공단은 남북의 경제특구로서 개성공단 경제특구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어야 한다. 남북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한 기업은 조기에 안정을 찾은 반면 우리식 기준을 절대화 또는 일반화하거나 자본주의적 우월성을 앞세워 매사에 자본, 돈, 물질 중심적 사고에 경도된 기업들은 오랫동안 힘든 기간을 보내야 했다. 결국 기업도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므로 기업 구성원인 남과 북이 서로에 대한 이해 없이는 안정적 기업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운 것이다. 다행히도 새로 남북경협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기존 개성공단 운영을 통해 습득한 경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가지고 있는 개성에서의 기업 경영 노하우를 제대로 체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남측의 한반도 신경제 지도와 북측의 경제개발구 지도를 펼쳐보자. 남북이 경제 번영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한반도의 새로운 지도를 함께 그려 나가고 있다. 두 지도를 유심히 보면 남과 북의 경제적 이익이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성공단 14년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다. 향후 남북경협이 확대되면 우리에게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북측에는 대동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게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평화를 견인하는 남북경협의 근본적인 목적이자 완성이다.

<그림 3> 북한의 경제특구와 관광개발구



한눈에 읽는 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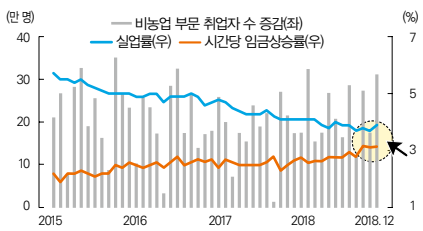
USA

고용지표는 양호하나, 연방정부 셧다운 등으로 불확실성 확대

12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 증감은 31만2,000명 증가로 10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의료(8만 2,000명), 건설업(3만 8,000명), 제조업(3만 2,000명) 등 업종 전반에서 증가했다. 실업률은 3.9%로 전월(3.7%)보다 0.2%포인트가 상승했으나, 이는 구직자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여전히 고용 여건은 견조함을 보였다. * 경제활동참가율(%): 62.7(2018. 8)⇒62.9(10)⇒63.1(12)

시간당 평균 임금도 27.48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해 향후 소비 증가세가 지속될 것을 시사했다. 한편, 셧다운(2018년 12월 22일 0시, 현지시간)이 27일째(2019년 1월 17일 기준)이어지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셧다운의 영향을 받는 연방공무원(약 80만 명)의 무급휴가 등의 이유로 소비심리 위축 등이 우려되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감 및 실업률



주 전년 동월 대비 자료 미 노동부

China

경기 둔화 우려로 2019년 경기부양책 추진

(중앙경제공작회의*, 2018. 12. 19~21)

* 당·정부 최고 지도층이 참석하는 연례회의, 내년도 경제 운용 방향 논의

최근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11월 소매판매는 자동차(−10.0%), 통신기기(−5.9%) 등 소비가 감소해 2003년 5월(4.3%) 이후 15년 만에 최저치인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했고, 12월 제조업 PMI도 2016년 2월(49.0) 이후 최저치인 49.4로 부진했다. 주요 경제지표의 둔화를 반영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주요 기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6%대 초반으로 하향 조정했다. 2018년 12월 중국 정부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기 둔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급준비율 인하, 지방채 조기 승인 등 약한 규모의 재정 및 통화정책 시행을 예고했다.

주요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

기관 \ 연도	2018	2019	전망 시점
IMF	6.6	6.2	2018. 10
OECD	6.6	6.3	2018. 11
WB	6.5	6.2	2019. 1
ADB	6.6	6.3	2018. 10

단위 % 자료 각 기관 발표

Japan

신선신품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 24개월 연속 상승

2018년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3% 상승해 2018년 평균 1.0% 상승률을 기록했다.

* 소비자물가 증가율(%): −0.1(2016) → 0.5(2017) → 1.0(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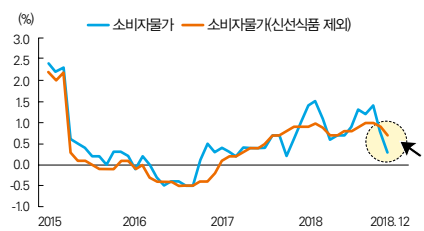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7% 상승해 24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으나 시장 예상치(0.8%)를 하회한 수준이다.

* 신선식품 제외 소비자물가 증가율(%): −0.3(2016) → 0.5(2017) → 0.9(2018)

한편 일본 2019년 소비자물가는 소비세율 인상(10월, 8% → 10%)의 영향으로 큰 폭의 오름세가 전망된다.

* 2019년 일본 소비자물가 전망치: 일본은행(1.9%), 민간기관 평균(1.2%)

소비자물가



주 전년 동기 대비 자료 일본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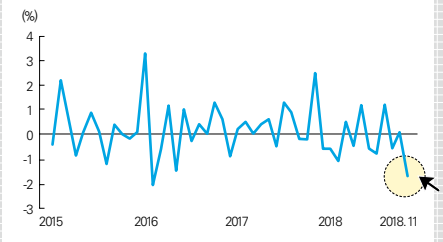
Eurozone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노딜 브렉시트 우려 확산, 혼란의 유로존

2019년 1월 15일,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하원에서 반대 432표 대 찬성 202표의 큰 표차로 부결되면서 노딜 브렉시트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투표 재실시 가능성도 제기되며 최근 여론조사 동향은 브렉시트 반대가 다소 우세한 상황이다. 다만 여당의 반대 등으로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3월 29일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지, 아니면 기한을 연기해서라도 대안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11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부문별로는 광업(−3.9%), 제조업(−1.7%), 에너지(−0.6%) 등 주요 부문 모두 감소해 향후의 경기 둔화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산업생산



주 전월 대비 **자료** 유로스탯(Eurostat)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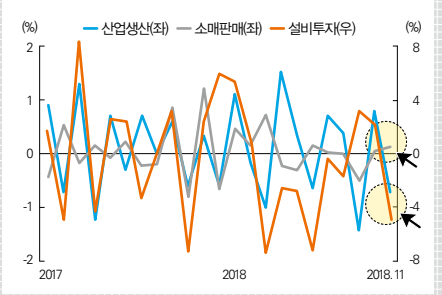
소비는 늘었으나 투자·생산·수출은 감소 전환

11월 설비투자(−5.1%)는 기계류(−6.1%), 운송장비(−3.1%)가 줄고, 생산(−0.7%)도 반도체(−5.2%), 자동차(−2.3%) 등 제조업(−1.9%)이 줄어 감소했고, 소매판매(0.5%)는 통신기기 등 내구재(3.3%) 판매 등이 늘어 증가했다. 제조업 재고(1.7%)는 늘고 출하(−2.5%)도 줄어,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 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각각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각각 8개월, 6개월 연속 하락해 경기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보여 주는 시그널로 보인다.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pt): 98.9(2018. 8)→98.6(9)→98.4(10)→98.2(11)

** 선행지수 순환변동치(pt): 99.4(2018. 8)→99.2(9)→98.8(10)→98.6(11)

산업생산



주 전월 대비 **자료** 통계청

수출, 2018년 사상 최초 6,055억 달러 돌파하며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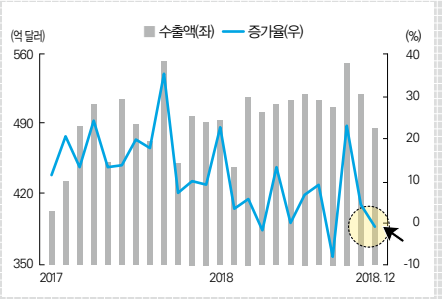
연간 수출은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 5개 주력 품목이 두 자릿수 증가하는 등 품목별 고른 증가세를 시현했다. 지역별로는 중동, 중남미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증가했고, 중국(14.2%), 일본(14.2%) 등에서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12월 수출은 세계교역 증가세 둔화, 국제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8.3%), 중국(−13.9%) 수출이 줄어 1.2% 감소했다.

※ 업종별(%): (석유제품)33.5 (반도체)29.4 (컴퓨터)17.3 (석유화학)12.0 (일반기계)10.2

※ 국가별(%): (미국)6.0 (중국)14.2 (일본)14.2 (EU)6.7

정부는 2019년 주요국 경제성장률 둔화와 미·중 무역 분쟁 등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나 적극적인 통상 이슈 대응, 신新 남방시장 개척 등 정책 역량을 활용해 부정적 전망을 정면으로 돌파할 계획이다.

수출



주 전년 동월 대비 **자료** 관세청

환율

Exchange Rate

12월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 평균 1,122.9원, 월말 1,118.1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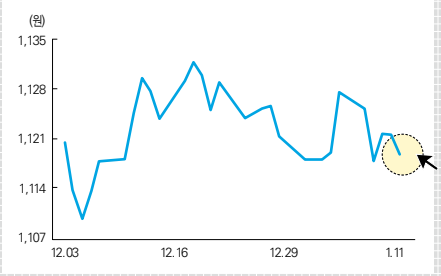
원/달러 환율은 주요국 경기 부진 등이 안전자산 선호 강화에 영향을 미쳤으나, 완화적 스탠스로 인식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국내 수출 경기를 반영한 달러 매도 확대 등으로 1,100원 중반까지 하락했다.

1월 원/달러 환율은 1,120~1,135원대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글로벌 증시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며 오히려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대내적으로는 2018년 무역수지 흑자, 국내 경기지표 둔화로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도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상승 요인	하락 요인
① 미국, 중국 등 경기 둔화 우려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②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① 2018년 경상수지 흑자 호조 ②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12월 금리 인상 효과 제한 ③ 위안화 약세 제한

원/달러 환율 동향



주 매매기준율 **자료** 한국은행

2019년 1/4분기 말 환율 전망은 1,12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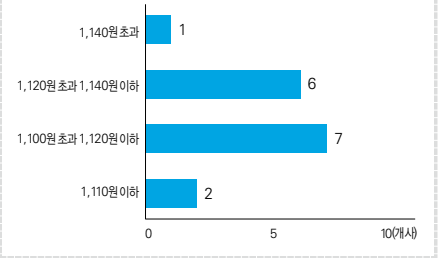
블룸버그에서 실시하는 주요 투자은행IB 16개사의 2019년 1/4분기 말 원/달러 환율은 평균 1,120원으로 전월 평균 전망치(1,128원)보다 낮게 전망했다. 최소값은 1,090원, 최대값은 1,160원으로 나타났다. 1,100원 초과 1,120원 이하로 전망한 IB가 7개사로 가장 많았고, 1,120원 초과 1,140원 이하로 전망한 IB가 6개사로 조사됐다.

2019년 2/4분기 말 환율 전망은 1,123원

2019년 2/4분기 말 환율에 대해 주요 IB들은 1,123원으로 전망했다. 환율 전망치의 최소값은 1,080원, 최대값은 1,160원으로 나타났다.

※환율 전망 응답 시기: 2019.1. 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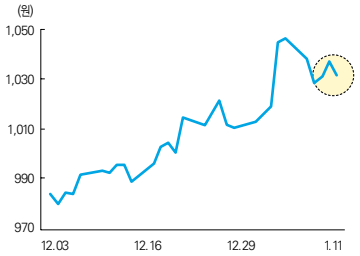
주요 IB 환율 전망



주 2019년 1분기 말 **자료** 블룸버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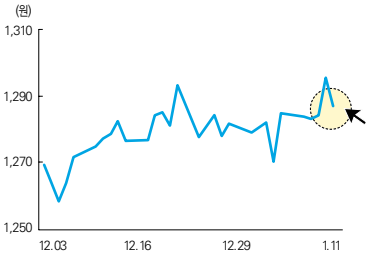
주요국 통화 환율 동향

원/100엔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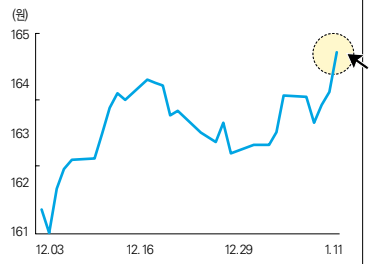
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 **자료** 한국은행

원/유로 환율 동향



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 **자료** 한국은행

원/위안 환율 동향



주 매매 기준율 **자료** 한국은행

중소제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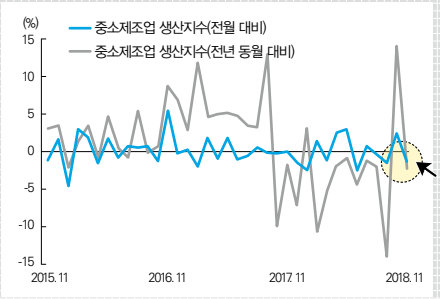
Small Business Trends

생산, 전월 대비 감소

2018년 11월 중소제조업 생산은 스마트폰 신제품 판매 부진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1.5%, 전년 동월 대비 2.3%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전월 대비 의복 및 모피(11.6%), 종이제품(2.6%) 등에서 증가했으나, 반도체(–5.2%), 통신·방송장비(–14.4%) 등은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반도체(17.5%), 기타 운송장비(17.5%) 등에서 증가했으나, 전자부품(–8.9%), 통신·방송장비(–25.3%)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생산증감률은 중소기업·대기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생산



자료 통계청

가동률, 전월 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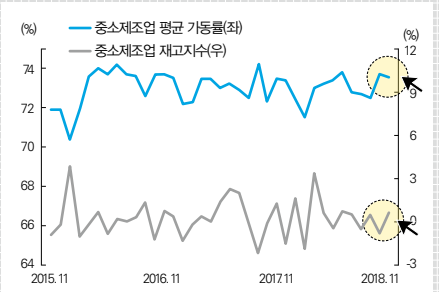
2018년 11월 중소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소기업(5~49인)에서 0.5%포인트 하락, 중기업(50~299인)에서 0.4%포인트가 상승해 전체 평균 가동률은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73.5%를 기록했다.

재고, 전월 대비 증가

2018년 11월 중소제조업 재고는 전월 대비 0.6%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전월 대비 석유정제(9.5%), 반도체(4.4%) 등에서 증가했으나, 화학제품(–1.5%), 고무·플라스틱(–1.0%)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재고증감률은 중소기업·대기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가동률 및 재고



주 재고지수는 전월 대비

자료 중소기업중앙회·통계청

취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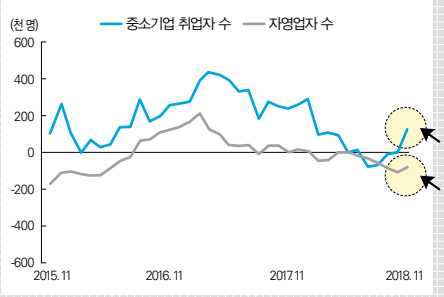
2018년 11월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만6,000명이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종업원 수 5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변동이 없었으나, 5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12만6,000명이 증가하면서 전체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2,464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종업원 수 299인 이하.

자영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감소

2018년 11월 자영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7만8,000명이 감소해 560만3,000명을 기록했다.

고용



주 전년 동월 대비

자료 통계청

문태성 IBK경제연구소 경영연구팀 차장
사업그룹 이슈분석 및 연구, 은행경영 현안 및 전략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경영

최근 연구결과는 사회적책임에 투자한 기업이 신용등급이 우수하고, 자금 조달 비용도 덜 든다고 밝힌다. 최근 한국에서도 기업, 공공기관, 은행을 중심으로 사회적책임의 핵심인 인권경영이 화두로 떠올랐다.

PHOTO **한경DB**

그간 한국 사회에는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각종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외적으로 근대화와 경제대국화에 성공했으나, 안으로는 경제적 불평등과 불공정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사회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포용국가의 핵심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배제하지 않는 포용'을 통해 국민 다수가 성장의 혜택을 누리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그간의 신자유주의 배제적 성장Exclusive Growth에 대한 반성으로 출현한 것이다."

지난해 9월에 열린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도 '생명의 존중',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 등 인권 이슈가 다수 포함되었다. 우리 사회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고, *인권경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글로벌 제조업을 위주로 꽤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다. 대표적인 예로 나이키 하청공장 스캔들이 있다. 1996년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지의 하청공장에 일감을 줬다. 대다수 공장은 임금을 더 적게 들이려 아동을 동원했고, 이런 착취 현장은 한 다큐멘터리로 퍼져 나갔다. 원형을 이루는 축구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각을 손으로 바느질해야 하는데, 하나를 만들려면 1,620번의 손바느질이 필요했고, 파키스탄, 캄보디아 아이들은 하루 종일 축구공을 만든 대가로 60센트를 손에 쥐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나이키는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했으며, 당시 영업이익이 37%나 줄고, 1,600여 명을 감원하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이밖에 성차별적 고용 행태를 보인 월마트, 나이지리아의 환경과 지역사회를 파괴하며 석유를 채취한 셸, 콜라를 만들기 위해 인도의 식수인 지하수를 과도하게 사용한 코카콜라, 아프리카 분쟁지역의 다이아몬드를 구매한 드비어스 등의 사례도 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기업이 주변의 경제·사회·환경적 요소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이를 기업 활동에 자발적으로 반영하는 것.

***인권경영**
기업이 ① 인권정책 선언을 하고 ② 인권 실천 및 점검 의무를 이행하며, ③ 인권 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를 적절히 제공하는지 평가하는 등 인권을 중시하는 경영의 한 형태.

▲ IBK기업은행은 시무식에서 'IBK인권경영 선언식'을 가졌다.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은 "인권보호, 인권존중, 인권침해 구제라는 3가지 원칙 아래 임직원, 고객, 주주, 협력기업 등 모두의 인권이 우선시 되는 인권경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고객사, 수출 기업에 '사회적 책임' 요소 물어

그러나 시대는 변했고 대다수 글로벌 기업은 변화를 다짐했다. 때문에 한국 수출 중소기업도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수출기업 CRS 관련 리스크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120여 개 한국 수출 중소기업 중 54%가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70%가 넘는 기업이 평가 분야 중 '인권'이 포함되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평가 받은 기업 5곳 중 1곳은 협력사 선정 배제 등 실제 사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 성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영국 금융그룹 바클레이스가 미국 회사를 토대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책임에 투자가 활발한 기업일수록 미흡한 기업보다 신용등급이 우수하고,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회사채와 국고채 금리 차이, 스프레드가 낮을수록 신용 위험도 낮음)도 38bp(100분의 1%)나 낮았다. 환경경영Environment, 사회책임경영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수준 등 총 3가지 부분에서 평가하고, 이를 등급화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 벤치마크를 'ESG'라 하는데, 바클레이스의 연구 결과 ESG 성과가 높을수록 평균 스프레드가 낮거나 신용등급이 한 등급 이상 우수하다

*ESG란
환경경영Environment, 사회책임경영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등급화한 지표로 기업 사회적 책임 경영의 대표적인 벤치마크

주요 통계

연도	ESG* 성과가 낮은 기업군의 회사채	ESG 성과가 높은 기업군의 회사채	비 고
평균 스프레드	172bp	134bp	38bp 낮음
평균 신용등급	A3	A2	1등급 우수

는 것이 밝혀졌다.

공공기관이 앞서 나서는 인권경영의 실천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도 공공기관에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 또는 실행하라고 권고했다. 현장에서 기업의 인권경영을 보다 속도감있게 확산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도 인권경영 이행 여부를 평가받을 것이며, 국가인권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등을 기반으로 인권경영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은행권은 이보다 앞서 인권경영을 도입했다. 은행은 자금을 중개해 생산(기업) 및 소

▲ 도이치뱅크 등 유수 유럽은행들은 이미 사회책임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비(가계) 부문을 연결하는 경제주체라는 점에서 공공성이 강조되어 왔다. 은행의 경우 사업 범위가 넓고, 이해관계자가 매우 다양하기에 인권경영과 더 밀접하게 얽힌다. 그래서일까. 한국에서도 최근 10여 년간 국내외 주요 금융기관, 공공기관들이 국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권경영을 도입해 공표해 왔다. 2010년 이후,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등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인권선언문'을 제정했고, 해외에선 2004년 영국 바클레이스가 독자적인 인권선언문을 제정했다. 도이치뱅크, UBS 등 유수의 유럽 은행은 이미 사회책임경영 체계까지 구축한 상태다.

3대 주요 은행, 그리고 IBK기업은행 인권경영 선언

사실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도 오래전부터 인권경영을 실천해 왔다. 우선 UNGC(유엔 산하 국제사회 윤리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기구) 회원사로서 인권경영과 관련한 내규를 운용하고 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인권경영정책 선언, 정기적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 인권경영을 더욱 고도화할 예정이다.

특히 향후 발전 계획으로 관리체계 고도화와 인권경영 범위 확장을 2가지 축으로 삼았다. 단순히 인권경영을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방법은 이렇다. 먼저 관리체계 고도화는 인권경영 현황 전반을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구제기구 등을 설치해 고충 해소를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에도 힘쓸 예정이다. 또한, 인권경영의 범위도 기존에 내부직원 뿐만 아니라, 고객 등 이해관계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인권경영 확산의 배경, 국내외 사례 등에 대해 기술해봤다. 인권경영은 기업의 이해관계자들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기업의 카운터파트너들에게 이로울 수 있다. 그렇다고 비용상승 등 기업 경영에 해가되는 제로섬 게임도 아니다. 기업은 인권경영을 통해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와 평판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내부직원은 물론 고객, 협력사들로부터 더욱 사랑받을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인권경영은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 게임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쟁이 불가피한 소규모 개방국가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인 인권경영에서 뒤쳐질 경우 지속가능한 성장도 어렵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인권경영이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 저변에 확산되고 자리잡기를 기대해 본다.

인권경영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면 기업은행의 브랜드 이미지와 평판을 제고, 고객만족도를 개선해 은행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 인권위 권고안을 이행해 기관 경영평가에 선제적 대응 효과 등을 거둘 수 있다.

공수진 IBK기업은행 기업지원컨설팅부 컨설턴트
IBK기업은행의 'IBK동반자컨설팅 프로젝트'에서
전략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다.

저성장기의 고착화, 소비자 욕구와 환경 변화에 주목하라

한때 수요가 많았던 제품이 어느덧 시간이 지나 더 이상 아무도 찾지 않는 것이 되었다. 고객의 마음이 달라졌고, 환경이 변하고 있다. 성장의 기회는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현 국내의 경제 상황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구조적 전환기에 놓여 있다. 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19년 경제성장률을 2.4~2.7%로 예상하며, 성장세 둔화에 따라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1~2018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66%씩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 저성장 경제는 이미 당면한 사실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저성장기를 맞이해 무리한 구조조정 위주의 상투적인 기업 전략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저성장 구조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소비자 욕구와 사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주목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업의 변화를 통한 체질 개선으로 도약과 성장의 기회를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고객의 수요와 트렌드에 대한 감도가 요구되는 시기

국내 플라스틱 사출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인 I사의 경우, 전방산업인 휴대전화 케이스의 수요 감소에 따라 가전 케이스 및 자동차부품으로 새로운 수요처를 발굴함과 동시에 플라스틱 사출 플랫폼 사업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활로를 찾고 있다. 스타트업 자회사의 시제품 개발과 투자를 지원함과 동시에 기존에 축적한 사출 기술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기술 역량의 우위를 지속 유지하고, 미래 수요처가 될 유망 기업들과 협력해 생산 기술을 서비스함으로써 양산에 이르는 사업모델을 구축한 것이다. 전방산업의 수요처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제조업이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 제조 플랫폼으로 사업을 재정립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창출 중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스스로 미래 고객을 발굴하는 플러스 사고방식인 것이다.

한편 이 업체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플라스틱, 플라스틱 프리No Plastics, Plastics Free'라는 플라스틱 사용 절감 트렌드를 무시할 수 없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이 당면한 과제라는 점에서 우수한 제품

의 출시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잠재시장의 범위가 넓고, 성장률도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재활용을 염두에 둔 자발적인 제품 생산과 친환경 소재 기반의 신제품 개발은 필수적이다. 종이나 스테인리스 등의 대체재가 존재하고, 환경과 관련한 윤리적 소비 문제까지 이르는 소비자의 최종 구매 선택 상황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을 만큼 고객의 수요와 트렌드에 대한 감도Sensitivity가 필요하다.

저성장기, 비극인가 희극인가

오랜 경제 불황에 따른 저성장 국가의 대표 사례로 회자되는 일본의 경우, 2013년 창업한 모바일 중고거래 서비스 기업인 메루카리Mercari가 일본 증시에 상장되어 2018년 시가총액 7조 엔을 넘어섰다. 2018년 말 기준, 월간 이용자 수가 평균 1,100만 명을 넘어섰으니 전체 인구 대비 8.67%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니혼게자이는 메루카리로 인해 원화 기준 4조7,229억 원에 이르는 중고 시장이 창출되었다고 보도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선식품에서 가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카테고리의 중고 거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메루카리의 성장 요인은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증가한 소비자의 중고 거래 수요에 대응해 경매나 개인 간 거래라는 전통적인 온라인 중고 거래 방식을 모바일 앱을 통해 쉽고 간단한 서비스 방식으로 제공했다는 점이다. 저성장기 시장의 중고 거래에 대한 고객의 욕구와 대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중고 시장이라는 기회를 포착함으로써 기존 시장을 혁신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셈이다. 국내에도 유명 포털 사이트의 카페에서 시작된 대표적인 중고 거래 사이트가 있고, 거주 지역 인증을 통한 개인 간 중고 거래 방식의 모바일 앱도 소비자에게 널리 확산 중이다. 해당 사업의 경우, 메루카리의 사업모델뿐만 아니라 지역 내 물품 수거 및 배송, 각종 중고품의 수리, 수선의 업사이클Up-cycle 서비스 등의 추가적인 사업 기회가 존재하며, 개인 간 신선식품의 직거래나 공유 거래 등의 신규 서비스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영위 중인 사업에 있어 고객의 진정한 욕구는 무엇인지, 사업 환경의 변화는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버티는 힘'에서 '창출하는 힘', '도전하는 힘'으로 저성장기의 흐름을 타고 넘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버티는 힘만으로는 현재 당면한 기업 환경과 필연적으로 다가올 사업 환경의 변화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국의 극작가인 버나드 쇼는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중소기업 또한 역동적인 사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유기체라는 점에서 "저성장기는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는 말로 저성장기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버티는 힘'에서 '창출하는 힘', '도전하는 힘'으로 저성장기의 흐름을 타고 넘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WRITER **박종우**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전무

중소기업 CEO가 꼭 알아야 할 2019 개정 세법과 절세 방안

올해 발표한 정부의 개정 세법은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리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소득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을까에 집중되어 있다. 정부는 '법인세법'을 포함한 19개의 세법을 손보았는데, 그중에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알면 좋을 정보들을 모아봤다.

새로이 창업이나 사업장을 신설할 계획이 있는 사업자라면 정부에서 지정한 지역을 고려해 볼 만하다. 정부는 고용이나 산업이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라북도 군산 등 9개 지역을 선정했는데 올해부터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할 경우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해 준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한도 없이 이 감면이 적용되므로 사업의 특성상 그 위치에 따른 걸림돌이 없다면 사업자는 이를 적극 검토해 볼 수 있겠다.

기존에 전기자동차를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대여업자가 받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적용 대상에 올해부터는 수소자동차 대여업자도 추가된 반면 비트코인 등 암호화 자산을 매매하거나 중개하는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사업자는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혜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업용 자산에 투자를 예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올해 말까지 투자할 것을 권장한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혁신성장 투자 자산에 한정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일반

박종우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전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 기간을 반으로 줄여 조기 상각함으로써 세제상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 창업자의 선발, 투자, 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창업기획자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해 얻은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해 주고 있으며, 해당 개인투자조합 자산을 관리하거나 운용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도 면제하고 있다. 투자 유인이 넓어졌으니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할 수 있다.

문화 활동에 관심이 많은 경영자인 경우에는 기존 문화접대비의 범위에 100만 원 이하의 증정용 미술품 구입 비용이 추가되었고, 현행 관광·공연장 입장권 중 공연물 관람 가격에 한정(식비 등은 제외)되었던 비용이 올해부터는 입장권 가격 전액을 그 범위에 추가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인적자원 즉, 근로자가 경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인력 지원을 목적으로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은 해당 성과급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이를 지급받은 근로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회사의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직원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해 지급받는 인건비에 대해서 법인세의 10% 세액공제를 해 주므로 소속 직원의 권리도 찾아 주면서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는 측면이 있음을 참고하면 좋겠다.

기업 운영과 관련한 절세 방안도 중요한 반면 중소기업 CEO 개인으로서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꼽으라면 올해부터 강화된 역외탈세 부분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법인에 대해서만 100% 소유한 외국 법인의 해외금융계좌만 신고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개인도 100% 소유한 외국 법인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미신고 금액의 10~20%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될 수 있으니 유념할 필요가 있다.

회사의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직원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해 지급받는 인건비에 대해서 법인세의 10% 세액공제를 해 주므로 소속 직원의 권리도 찾아 주면서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

또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운용하는 경우 신고대상 및 미신고 시 제재도 강화되었다. 종전에는 관련 부동산의 취득 내역이나 운용 내역만 신고했으나 올해부터는 취득가액 2억 원 이상인 부동산의 취득·운용 내역뿐만 아니라 처분 내역도 신고해야 하고 미제출 시 과태료도 해당 금액의 1%에서 10%로 인상되었다.

해외에 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및 내국 법인이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미제출 시 올해부터는 해당 과태료도 인상되고,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국내외 거래를 하거나 국내 거주자끼리 국외 거래에서 발생한 세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등 역외탈세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CEO라면 언제나 우리가 처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항상 관심을 갖고 고민할 것이다. 세법 개정도 항상 그 당시 경제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움직일 수밖에 없다. 내가 속해 있는 산업이나 경영하는 사업에 향후 전망이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목소리를 높여 세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도 중소기업 CEO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

WRITER 박주연

타인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 착한 소비

내가 필요한 것을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기부가 된다면
구매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즐거운 일이다.
최근 이러한 '착한 소비'를 위한 기업들의 착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착한 일을 하는 것, 이제 어렵지 않다.

| 할리스커피 |

물 담는 텀블러 소비가 물 정화 사업으로까지

할리스커피는 텀블러 브랜드인 미르MiiR와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총 3종의 텀블러와 스테인리스 머그 3종을 출시했고 텀블러 구매 시에는 자동으로 금액의 일부가 기부된다. 이 소비를 통해 제품 가격 중 일부가 물 정화 및 위생 사업에 사용되는데 텀블러에 기입된 기부 코드로 미르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 상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기부된 금액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까지 확인되니 소비자들은 더 확실한 보람을 느끼게 된다.

| 아모레퍼시픽 |

착한 소비를 넘어 미닝 아웃까지

국내 대표 화장품 브랜드인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핑크리본 스페셜 에디션'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해당 제품의 판매액 3%를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하는 것으로 주 소비자 층인 여성들의 '가심비'를 저격하고 있다.
매년 다양한 상품과 컬래버레이션을 하는데 제품 디자인에 핑크리본이 포함되어 소비 행동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미닝아웃' 또한 가능하다.

| GS25 |

맛있는 음식, 맛있는 기부

편의점 GS25는 전용 브랜드National Private Brand, NPB로 상품화한 '유어스 에센소시지'와 '유어스 페리오내츄럴믹스'를 구매하면 금액의 1%를 정기적으로 RMHCRonald McDonald House Charities에 자동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매장에 비치된 '디지털 코인박스'를 통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건당 1,000원씩 전자 기부를 할 수 있어 일상적인 기부 활동을 돕고 있다.

| 삼성물산 |

눈을 위한 마음을 디자인

2006년부터 매년 시각장애 아이들과 패션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된 삼성물산의 '하트포아이' 캠페인. 유명 연예인을 비롯해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캠페인에 참여해 패션 아이템을 제작 및 판매하고 그 수익금은 삼성서울병원을 통해 시각장애 환아를 위한 치료비와 수술비로 사용하고 있다.
2018년까지 총 5억3,000여만 원이 모였고 지금까지 총 288명 환아의 수술을 도왔다.

| CJ제일제당 |

내가 마시는 물처럼 깨끗한 물로

2012년 3월부터 시작된 'CJ제일제당 미네워터 바코드롭 캠페인'. 소비자가 미네워터 한 병을 구매하면 CJ제일제당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50원을 기부하는 방식이다. 기부된 돈은 아프리카 아동 식수 지원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2012년부터 5년간 모인 금액은 2억5,700여만 원이며 해당 캠페인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장기 이벤트다.

| GS샵 |

사회적 기업을 소비하고 수익금은 기부까지

2010년부터 매월 1회 진행하고 있는 '기부 방송'은 사회적 기업 상품을 판매하는 특별 편성 판매다. 장애인 재활단체, 친환경 기업, 공정무역단체 등에서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그 수익은 다시 사회적 공익 활동을 위해 사용한다.
수익의 기부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기업 등의 판로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내어 GS샵의 경우 한 가지의 이벤트로 일거양득의 효과를 내고 있다.

| 피자알볼로 |

배달업 종사자들을 위한 피자

2013년부터 피자알볼로의 대표 메뉴 중 하나인 '어깨피자'의 경우 판당 100원을 배달업 종사자들의 의료비와 장학금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금을 사용한 후에는 즉각 언론에 보도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내용을 전달해 소비자들의 착한 소비가 주는 긍정적 흐름을 전달해 주고 있다.
해당 이벤트의 경우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어깨피자' 외에도 더 많은 메뉴에 이벤트를 적용하고 있다.

| 모닝글로리 |

독도를 지키는 작은 노력

지우개, 연필, 공책에 독도 사진 등으로 디자인을 더해 2013년부터 '독도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는 모닝글로리. 수익금의 무려 50%를 독도사랑운동본부에 기부하고 있다. 노트 디자인의 경우 매년 수백 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아이들의 선호도에 맞게 리뉴얼해 오고 있다. 독도지우개 경우 출시 후 3개월 만에 1차 입고분이 모두 팔렸을 정도로 모닝글로리의 '독도 시리즈'는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큰 인기다.

WRITER **김형환**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임교수·수석전문위원

부드럽고 분명하게 거절하는 방법

누군가에게 받은 부탁, 흔쾌히 들어주면 좋지만 곤란한 경우도 많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의중을 전달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설득만큼 어려운 것이 거절이다. 특히 기존의 관계에 오점을 남길 것 같은 두려움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거절을 못하고 "그래요, 해 드릴께요"라며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넌 경우가 많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서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할 때 거절은 결코 일상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기 힘들다. 기존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고, 상대에게 불편함도 주지 않는 부드럽고 예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거절법이 있을까?

최선을 다해 무조건 공감만 하라

오랜 시간 막역한 사이인 거래처 사장에게 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도와달라는 연락이 왔다. 하지만 그는 이미 업계에서 약속에 대한 평판이 그리 좋지 않은데다가 당사의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아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당장은 도울 형편이 안 된다. 그렇다고 한두 해 알고 지낸 사이도 아니고 함께 나가는 조찬 모임회의 일원이라 딱 끊고 매몰차게 거절하기도 매우 불편하다. 일단 이야기를 들어 본다. 상대가 원하는 것은 자금이지만 그 이상의 욕구가 있을 수 있다. "김 사장 무슨 일 있어? 말해 봐. 왜 갑자기 어려워진 거야?" 이 한 마디에 상대는 입과 가슴을 열고 자신의 상황을 호소할 것이다. 초입 부분 조금만 들어도 사태의 심각성과 자금 요청, 그리고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됨을 알게 되지만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도록 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공감하라. 자금 요청에 대한 공감이 아니라 자금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말이다. "그래서?", "그랬군!", "어쩌다?",

김형환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임교수·수석전문위원

"그럼 어렵겠지!", "힘들겠군!", "심각하네" 등의 맞장구를 치며 상대의 말에 적극 따라가 주어야 한다. 그의 힘든 마음에 내가 빙의되어 적극적으로 받아주면 비록 그의 요청에 내가 거절을 해도 절대 기분이 상하거나 기존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잘 들어주어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다가 "잠깐…. 그래서 내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 아닌가? 그만해. 어차피 난 못 도와주니 말할 필요도 없네"라고 끊는다면 상대는 용기 내어 부탁한 그 마음마저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매우 큰 실망을 갖게 될 것이다.

급박한 요청이 들어오는 순간에는 생각할 겨를이 없다. '생각 시간'을 요청하는 연습을 하루 3번 이상 무조건 해 볼 것을 권한다.

생각의 시간을 요청하라

의사결정의 가장 큰 위험은 '조급성'이다. 급하게, 잠깐만, 지금 즉시 등의 표현은 올바른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그때는 "내게 생각할 시간을 줄 수 있을까요"라며 요청을 해야 한다. 상대와의 조급한 분위기를 가라앉힐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생각만 하면 될까? 아니다. 보통 이렇게 간극을 주면 상대는 거절당하기 전에 스스로 포기하고 물러날 때가 많다. 기분 나쁘지 않게 요청을 접는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하는 시간을 요청하는 '말의 연습'이 필요하다. 보통 급박한 요청이 들어오는 순간에는 생각할 겨를이 없다. '생각 시간'을 요청하는 연습을 하루 3번 이상 무조건 해 볼 것을 권한다. 무의식중에 일단 습관처럼 요청한 후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도 요청이 있다면 그때 정중히 거절할 것. 생각을 해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충분히 거절에 대한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단호한 결정, 그리고 침묵

앞의 경우와 같이 충분한 공감과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결정한 거절이라면 상대와의 관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결정 후 자신의 태도다. "생각해 봤는데 지금 내 상황에서 자네를 돕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같아. 내가 숙고해서 결정한 일이라 자네가 이해해 주길 바라네. 매우 유감일세." 이러한 표현은 충분하고도 분명한 거절이 될 수 있다. "미안해. 지금 내 상황만 아니었다면 도울 수도 있고, 내 맘 같으면 해 주고 싶기도 하고, 다음에는 꼭 도와주고 싶고, 이번엔 용서해 주기 바라네." 이 같은 불명확한 표현은 결정 후 상황에 결코 도움을 주지 못한다. 차라리 침묵을 지켜 주는 것이 상대를 위하는 일일 수도 있다. 침묵은 또 하나의 공감이며 이해의 표현일 수 있지만 불필요한 미안함의 지나친 배려는 상호 신뢰를 흔들 수도 있다. 단호한 거절을 통해 "이 사람은 스스로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구나"라는 경험이 더 큰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나란히 걷는 꽃길

수입 대체

SAMSUNG

삼성디스플레이 & (주)H&이루자

수입재를 중소기업 상품으로 대체

해외 업체가 독점했던 디스플레이 코팅 장비인 스퍼터를 국산화하도록 삼성디스플레이가 (주)H&이루자와 협력했다. 이를 통해 삼성디스플레이는 400억 원의 비용 절감을 이루었고 (주)H&이루자는 세계 시장점유율이 77%까지 상승, 2017년에는 2015년과 대비해 매출액이 기존 97억 원에서 약 2,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상권의 상생

emart

이마트 노브랜드 & 당진시장

노인층에 한정됐던 고객이 젊은 층으로 확대

이마트 노브랜드는 당진시장에 대형 마트와의 상생형 점포인 '노브랜드 당진 상생스토어'를 개설했다. 국내 최초로 자율적인 협의로 이뤄 낸 상생형 복합 매장이다. 공실률이 20% 이상이었던 당진시장은 현재 상생스토어 입점 이후 매일 많은 인파가 유입되었고 상생의 노력을 인정받아 이마트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신기술 개발 협력

LG화학

LG화학 & (주)대주코레스

이천만불 수출의 탑까지 수상하는 쾌거

전 세계 자동차업계의 이슈 중 하나는 차체 경량화를 위해 알루미늄을 부품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알루미늄이 열에 취약하다는 문제로 기술 개발이 쉽지 않았던 때, LG화학이 협력업체인 (주)대주코레스와 함께 해당 기술을 개발했다. 이로써 LG화학은 고객사와의 거래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주)대주코레스의 매출에도 영향을 끼쳤다.

거래 조건 및 관행 개선

KGC인삼공사

KGC인삼공사

신규 고객 유치와 단골 고객 확보에 영향

KGC인삼공사는 고객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해당 가맹점에 방문해 수령하거나 직접 배송받을 경우, 그 수익을 가맹점이 가져가도록 하는 '온·오프라인 매장연계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그 결과 전체 온라인몰 매출액 중 30% 이상이 가맹점의 매출액으로 돌아갔다. 가맹점은 고객과의 점점이 넓어져 신규 고객 확대와 단골 확보라는 효과도 얻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대기업에서 실천을 약속한 상생 방안

01 삼성전자
1조 원 규모의 상생 펀드를 조성해 1·2차 협력사에 최대 90억 원의 저리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400억 규모의 신기술 개발기금을 출연하고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협의를 통해 증액 여부 및 비율을 결정한다고 한다.

02 현대·기아자동차
5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기금을 조성해 협력사에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협력사 전용 교육센터를 설립해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03 LG디스플레이
1,000억 원 규모 기금을 조성해 1~3차 협력사에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LG디스플레이가 보유한 특허를 2·3차 협력사에 양도하고 암이나 희귀 질병이 발병한 상주 협력사 직원에게 당사 직원과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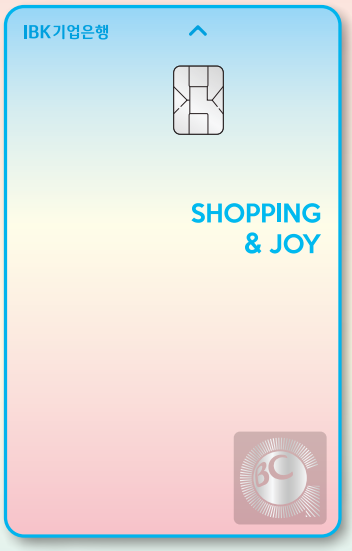
04 SK하이닉스
임직원 임금 인상분의 20%를 협력사 임직원 임금 인상과 의료복지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임직원 인센티브 금액의 10%를 협력사 인센티브로 지급할 계획이다.

05 포스코
제철소 설비와 자재 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5,000억 원 규모 기금을 조성해 1·2차 협력사에 저리로 대출해 주며 500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2차 협력사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1차 협력사에 무이자 대출을 할 계획이다.

(2019.9월 현재)

남보다 더 잘사는 비결

쇼핑앤조이



온라인 쇼핑 · 간편결제 건당 5천원 할인
스타벅스 사이렌오더 건당 2천원 할인
해외 · 통신비 · 대중교통 할인

발급대상 : 개인(본인 및 가족) | **브랜드 및 연회비 :** BC글로벌 1만원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18-C1-11277호 (2018.09.12)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8-4386호(2018.09.21) 게시기한 : 2019.09.13 출급번호 : CW613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 ☎08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 연체이자율 :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 + 최대 3%(법정 최고금리 24%)
  ※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일시불거래 연체시 :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할부 거래 연체시 : 거래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 그 외 경우 :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 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 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 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IBK동반자금융

최선을 다해 이뤄갑니다
IBK동반자금융

IBK기업은행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여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금융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사람이 기업이다
기업은행이 동반자다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